metro

메트로 2014년 8월 7일 목요일 제3031호 www.metroseoul.co.kr

3대 패키지 3년간 시행

2014 세법개정안 확정

정부가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한다. 또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시켜주는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공제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9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를 도입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안의 핵심인 '3대 패키지'에 대해 재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돼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내수진작 등 경제 활성화 초점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내수진작과 함께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 발표한 재정·통화·금융 정책에 이어 세제도 경기회복을 위해 동원된 것이다.

우선 3대 패키지를 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자기자본금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기준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내도록 했다. 정부는 4000개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설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내려가 소액주주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소득 증가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높아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임금 인상 기업에 임금 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를 해준다.

정부는 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을 30% 줄여주기로 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때 적용된 정률공제(40%)는 퇴직급여 수준에 따른 차등공제(100~15%)로 바뀌어 퇴직 당시 급여소득이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액 퇴직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급여소득 1억2000만원은 상위 1%에 해당한다. 차등공제는 2016년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퇴직 당시 급여소득 1억2000만~2억원 구간의 퇴직자의 경우 1인당 평균 60만원의 세금을 더 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는 기존의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00만원 확대된다. 특히 만 20세 이상이 가입대상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생계형저축과 통합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바뀐다. 가입대상도 고령자와 장애인 등으로 한정된다. 납입한도는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만기 10년~15년 미만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은 300만원 한도에서 이자 소득공제를 받게돼 서민 주택구입비 부담이 줄어든다.

자녀의 상속공제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경감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던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의 관리 경비 청소용역이 과세로 전환돼 이들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가 올라간다.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3% 수준인 약 30만 가구이며 가구당 세부담 증가액은 연간 10만~15만원 수준이다.

기업유보금 10% 세금부과
임금증가분 10% 세액공제
퇴직금 연금수령 30%감면
자녀 상속공제도 5천만원
해외여행 면세 600달러로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는 400 달러에서 600 달러로 높아지고, 국세를 전액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월 중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계·정치권 반발 통과 우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다. 이는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단일세율 10%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기업소득환류세가 발생하는 구간을 당기 이익의 70%로 설정했다면, 100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액 등으로 60억원을 썼을 경우 부족액인 10억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1억원을 추가 과세하는 방식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미 취임때부터 이에 대해 강조해온 반면, 재계는 기업 경영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금성 유보금도 일종의 투자인 만큼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새로 도입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확보가 아니라면 기업 국내외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내유보금 과세는 물론, 기업에 법인세율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사내유보금 과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세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2면으로 계속>

/김학준기자 kmj@metroseoul.co.kr

드라이브 거는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 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위원장인 박용근 대한상의 회장. /연합뉴스

고2 내신관리 신경써라

대입 학생부 비중 커져 … 수시 66.7%로 늘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1년 뒤에 치르는 201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 인원이 다시 늘어난다.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 수와 모집인원은 감소한다. 이에 따라 2016학년도에는 학생부 비교과(출결·봉사활동·수상활동 등) 관리를 잘 해온 수험생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대학교의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해 6일 발표했다.

2016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36만5309명으로 대학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만1558명(3.1%) 감소한다. 반면 수시 모집인원은 24만3748명으로 전년보다 2665명 늘어나 수시 비중은 64.0%에서 66.7%로 2.7%포인트 증가했다.

수시 비중은 시행계획 기준으로 2014학년도 66.2%에서 2015학년도 64.2%로 수시 도입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후 1년 만에 반등한다.

이와 관련, 입시전문업계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입도선매'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서울대를 포함해 주요 대학들이 수시로 70% 이상 선발하는 데다가 우수한 수험생들 대부분이 수시에 복수지원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수시 규모를 확대했다"며 "수시에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가 우수한 수험생을 미리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결과 발표 등을 반영해 대학이 학생부 중심 전형을 늘려 수시 모집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면으로 계속>

/윤다혜기자 yoh@

서울시 '김영란법' 먼저 시행

공직사회 혁신대책 발표… "천원이라도 받으면 처벌"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서울시가 먼저 시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고, 퇴직 후에는 직무 관련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혁신대책의 주요 내용은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퇴직자 재취업 등 관피아 근절 대책,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평상시 안전관리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등이다.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을 불문하고 징계하고 100만원 이상 받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한 번만 적발돼도 최소한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또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행동강령에 퇴직 후 직무 관련 기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한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퇴직공무원의 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려 공무원의 퇴직 전 소속기관과 직급, 취업허가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한다.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등록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내용은 시장과 감사관만 열람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알선이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는 등 징계 기준도 강화된다. 평소 공사장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은기자 mkim@metroseoul.co.kr

육군훈련소 찾은 야 혁신위원장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6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식당에서 훈련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볼라 공포' 과잉대응 자제해야

기자 수첩
조선미
<글로벌부 기자>

'에볼라 공포'가 지구촌을 뒤덮고 있다. 미국인 의사가 서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 중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 귀국하려 하자 미국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에서는 '에볼라 괴담'이 도는 가운데 한 국제 행사에 초대된 나이지리아 학생들의 초청이 취소됐다. 가히 '에볼라 패닉'이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평균 치사율이 70%에 달한다. 지난 2월 서아프리카에서 창궐해 1600여 명이 감염됐고 880여 명이 사망했다.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 이야기지만 한국도 100% 안전지대는 아니다. 비행기로 하늘길을 자유롭게 오가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살인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진다는 소식에 우리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몇몇 국내 단체는 아프리카인을 초청한 행사 자체를 취소하는가 하면 방문을 목전에 둔 학생들에게 '입국 금지령'을 내렸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내린 결정으로 보이지만 쉽게 수긍이 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확산됐다고 가정하자. 서방 국가가 아시아 전체를 '바이러스 대륙'으로 선포, 아시아인의 방문을 막아 선다면 말이 될까.

정부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 등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병한 서아프리카 3개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이곳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온당하다. 다만 필요 이상의 대응은 더 큰 사회적 혼란과 불신만 조래할 뿐이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 쓸데없는 공포감 조성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의 차분하면서도 냉철한 대응이 필요한 때다.

이주영 장관 영상간부회의 주재 세월호 참사 이후 113일째 진도 팽목항에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와 진도군청 간 열린 영상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관군 합동 '병영문화혁신위' 출범

심대평 위원장 "사회 전체가 책임"… 연말까지 개선안 채택

최근 군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역을 포함해 전역 병사, 부모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6일 발족됐다.

위원회는 전방 GOP(일반전초)와 해안소초 등의 현장 방문과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월에 '병영문화 혁신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복무제도 ▲병영문화·환경 ▲장병교육·윤리 등의 3개 분과위가 구성된다. 분과위별로 민간 전문가와 정부기관 관계자가 전문위원으로 편성되고, 군 관계자는 실무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당초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을 예정이었으나 사의를 표명해 누가 군쪽 공동위원장을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육군은 병영문화혁신위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요근 육군 참모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병영문화혁신 추진단'도 구성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사회 병폐들이 군에 가서 갑자기 1~2년 내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사회 전체적인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치유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준기자

"내수 효과 있을까" 우려도

<1면에서 계속>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 4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시장과 당 내외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논란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도 논란거리다. 이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임금 증가 기업에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적인 수혜대상은 기업이지만 결국 임금 증가의 혜택을 근로자들이 받게 된다는 것이 정부측 주장이다.

재계는 그러나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축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근로·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가계소득을 끌어올리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역할을 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도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와 세법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고,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정책방향을 구체화시키기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혜균기자 khk@

김무성 "이주영 장관 복귀해달라"

중앙서 더 많은 일 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 팽목항에 머물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이른 시간 내에 해수부 장관실로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장관은 할 일 많은 장관이다. 우리 수산 자원을 지키고 해운 산업도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며 "세월호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책 수립, 세월호 충비용 마련과 해피아 근절까지 모두 이 장관이 해야 하는 숙제가 산적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상 업무로 복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일병 집단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육군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책임을 다 진 것"이라면서 사건 당시 김관진 국방 장관(현 국가안보실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추가 인책론에 선을 그었다.

/조현정기자 hj@

붓에 마음을 담아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세계 위안부의 날을 기리며 클린-벽화가 있는 골목 벽화 그리기에 참여한 봉사자들이 담벼락에 꽃을 그리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동원사단서 구타 피해 주장

선임병들 가혹행위 수사

수도권의 한 동원보병사단에서 병사가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의 육군 모 부대 소속 전모(21) 일병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수차례 선임병 7명으로부터 생활관에서 진연봉과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 선임병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부모를 욕하는 행위를 강요당했다고 조사에서 진술했다. 구타로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진 전 일병은 현재 군 병원에서 두 달 째 치료를 받고 있다.

군 당국은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병 7명 등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 가해 혐의자 중 이미 전역한 4명에 대해서는 관할지 검찰에 사건을 이첩,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 일병의 동료 중 누군가가 무기명으로 "전 일병이 구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서에 알려지게 됐다.

/조현정기자 Jhj@

조현룡 의원 '철피아' 관련 검찰 출석

철도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때와 국회의원 당선 후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조 의원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지난주 조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조 의원의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 등 주변인물을 체포해 이들 등을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위씨 등에게 삼표이앤씨에서 돈을 받아오도록 시켰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조 의원을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용처 등을 추궁했다. 조 의원측에 넘어간 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조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민준기자 mikim@

입법로비 수사 '오봉회' 정조준

이사장 포함 친목모임 … 전현희 전 의원도 소환 계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들의 친목 모임 오봉회 멤버로 알려진 전현희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는 6일 전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 모임이 결성된 계기, 의원들을 상대로 한 입법로비와 모임의 연관성 등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봉회는 전현희 전 의원과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신계륜(60) 김재윤(49) 의원, 김민성(56)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이하 서종예) 이사장, 이 학교 겸임교수 장모(55)씨 등이 만든 사적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이 모임을 이용해 의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교명 변경을 도와달라며 입법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학용(62) 의원을 포함해 검찰에서 출석통보를 받은 야당 의원 3명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차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준기자

학생부 중심 전형비중 증가

2016학년도 대학 입시는 학생부 중심 전형 비중도 수시와 정시모집에서 2800여명 늘어난 20만9658명을 선발한다.

수시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 비중이 85.3%(20만7812명)이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이 86.4%(10만5394명)로 집계됐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선발 규모는 9980명으로 전년보다 2502명 확대된다.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은 의·치·한의예과는 646명을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이와 관련, 오종운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평가이사는 "학생부 중심 전형 비중이 커지면서 학생부 내신과 교내 수상실적은 고루 갖춘 학생이 유리하다"면서 "자신이 지원할 대학의 전형을 확인하고 학생부 교과성적은 중심으로 비교과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 영향으로 수시에서 논술과 적성시험으로 뽑는 인원이 모두 줄어든다.

2016대입 … 논술·적성 실시 대학 모집인원 감소

대학입시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정시	36.0%	33.9%
수시	64.0%	66.1%
학생부(교과)	39.6	38.4
학생부(종합)	15.7	16.5
실기위주	4.6	4.7
논술위주	4.0	4.2
총	371,807명	355,305명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연합뉴스

논술시험을 실시하는 대학은 28개교, 모집인원은 1만5349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대학 수는 1개교, 인원은 2068명 감소한다. 논술은 덕성여대가, 적성시험은 대전대와 한국기술교육대가 폐지한다.

적성시험을 보는 대학은 11개교, 인원은 4639로 역시 전년 대비 2개교, 1196명이 각각 준다.

이에 오 이사는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 시행 대학은 줄었지만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수시 일반 전형에서 대부분 논술고사를 시행하고 있어 여전히 중요하다"며 "수능 4, 5등급 학생들은 적성검사를, 3등급 이내 학생들은 논술 전형을 고려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윤다혜기자 yd@metroseoul.co.kr

방송대 2학기 지원 8천여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학기 신·편입생 정시모집에서 지난해보다 7923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대가 6월 9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진행된 2학기 신·편입생 정시모집을 집계한 결과 총 2만4667명이 지원했다.

특히 유아교육과는 모집인원 743명에 5687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경쟁률인 7.6대 1을 보였다. 2학년 편입생의 경우 경쟁률이 47대 1까지 올라갔다. 이어 간호학과(7.2대 1)와 청소년교육과(6.9대 1)의 경쟁률도 뒤를 이었다.

과별로 살펴보면 영어영문학과 2156명을 비롯해 경영학과 1658명, 가정학과 1449명 등의 순으로 많은 인원이 몰렸다.

전년 대비 지원자 인원이 가장 크게 증가한 학과는 유아교육과로 지난해보다 3232명이 더 지원했다. 청소년교육과(1590명)와 교육학과(1325명)가 그 뒤를 이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포천 빌라' 남편 사인은 미제로…

모자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 오늘 현장검증

'포천 빌라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구속된 이모(51·여)씨와 참고인 자격의 큰아들 박모(28)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진실에 가까운 반응이 나왔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이들이 주장한 '남편 자연사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10년 전 자연사했고 아버지의 시신을 어머니와 함께 옮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 모자, 특히 이씨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오락가락한 점을 근거로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수사했다. 하지만 조사결과가 진실에 가까운 반응으로 나타나고 이씨 남편의 행적도 2004년까지만 확인됐다.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부검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망 원인과 사망 시기를 추정하는 것도 어려운 전망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7일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김종훈기자

조폭 낀 4천억대 도박사이트 적발

전·현직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한 대규모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다.

6일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박 개장 및 상습 도박 혐의로 양모(3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양씨 등 구속된 3명은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명 '바둑이' 게임을 제공하는 도박사이트 '보물섬'을 관리하면서 모집책을 선정하는 등 국내 총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된 40명은 지인 등에게 사이트를 추천하는 모집책 구실을 하거나 사이트에서 거액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즐긴 혐의다.

경찰은 사이트 서버가 중국에 있는 점과 판돈이 오간 계좌 33개가 중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전 조직폭력배 A씨 지인 명의로 된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자로 보고 있다. 차명계좌 33개에서 오간 돈의 액수는 무려 4000억여원에 이른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서울여대, 수시 모의 전형

5일 서울여대에서 진행된 '2015학년도 수시모집 대비 모의전형' 행사에서 한 학생이 모의면접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여대 제공

서울여대가 5일과 6일 양일간 본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약 265명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수시모집 대비를 위한 모의전형을 개최했다.

모의전형은 실제 전형과 동일하게 참가자들이 면접관으로부터 사전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평가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여대는 올해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평가전형·기독교지도자전형·고른기회전형·농어촌학생전형·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등 6개 전형에서 면접을 진행한다.

모의전형에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대비를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특강'을 7일 개최한다.

남양주 도심천 대장균 '득실'

평균치 105배 기록 ·서울 상수원 위협

경기 남양주시 팔당댐 하류의 도심천에서 고농도의 총대장균군 등 다수의 오염물질이 확인돼 서울시민의 상수원이 위협받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연구원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도심천 2㎞ 구간에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대장균군 등 9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총대장균군 수치가 다른 지류천 평균 수치의 105배를 기록하는 등 오염이 심각했다고 6일 밝혔다.

오염이 가장 심각한 구간은 도곡교회 앞이었다. 이 지점의 총대장균군 수치는 100㎖당 95만군으로 팔당댐 하류 지류천 9곳의 올 상반기 평균 수치(100㎖당 9000군)의 약 105배를 기록했다.

BOD 수치는 15.2㎎/ℓ로 지류천 9곳의 상반기 평균 수치(3.2㎎/ℓ)보다 약 5배 높았다. 암모니아성질소 수치(NH3-N)도 7.656㎎/ℓ로 상류(0.012㎎/ℓ)의 638배, 하류(1.234㎎/ℓ)의 6배를 기록했다.

남양주 도심천

오염물질이 하천에 흘러든 원인은 과거 농경 지역이었던 도심천 일대에 인구가 늘면서 생활오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도곡교회 앞 지점에는 하수관로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하수량이 많으면 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넘쳐서 도심천에 그대로 방류되는 상황이다.

남양주시는 배관 구간에 둑을 설치하는 등 방안을 고민해왔지만 일대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과 맞물려 개선 조치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해운대 '물총 싸움' 6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구남로에서 열린 '해운대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물총 등으로 물을 뿌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푸시맨 사라지고 커트맨 등장

(왼쪽)1988년 건대입구역 푸시맨, 2010년 사당역 커트맨 /서울메트로 제공

지하철 개통 40년 '그땐 그랬지' 2

서울메트로는 사람들로 붐비는 혼잡한 지하철을 시대별로 다르게 대처해 눈길을 끈다.

1980년대에는 전동차는 부족하고 승객수요는 많아 어쩔 수 없이 승객들을 열차에 밀어 넣는 푸시맨이 있었다. 하지만 무리한 승차로 인해 안전, 열차 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돼 90년대 중반에 사라졌다. 2008년에는 혼잡한 열차는 보내고 다음 열차 승차를 유도하는 커트맨이 등장했다.

/[illegible]기자

"에볼라 사망 WHO통계보다 50% ↑"

라이베리아 활동 의사 밝혀… "감염자 숨기고 시신 몰래 매장"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숨진 사망자 수가 실제보다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은 에볼라 발병국인 라이베리아에서 활동하는 의사의 말을 인용, 서아프리카의 실제 에볼라 감염 사망자 수가 세계보건기구(WHO) 공식 수치인 887명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 에모리대 병원 의료진이 5일(현지시간) 도빈스 공군 기지에 도착한 낸시 라이트볼을 구급차에 싣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익명을 요구한 이 의사는 "현지 주민이 의심 증세를 보이는 가족을 숨기거나 감염자 시신을 몰래 매장하고 있다"며 "실제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사람은 WHO 공식 집계보다 50% 이상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WHO는 지난 2월 기니에서 에볼라가 발생한 이후 여태까지 1603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 이 가운데 88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다.

이번에 발견된 에볼라 바이러스는 각각 다른 지역에서 확인된 다섯 종류 가운데 가장 치사율이 높다. 평균 사망률이 70%를 넘는다.

영국 레딩대의 바이러스 전문가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단계가 말기에 이를수록 사망자가 늘어나 사망률도 80%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처음 에볼라 환자가 발생한 기니의 경우 사망률이 이미 74%에 달해 상대적으로 발병 초기 단계에 있는 라이베리아(54%)나 시에라리온(42%)보다 높다.

한편 서아프리카에서 구호 활동 도중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 간호사 낸시 라이트볼(59)이 이날 귀국해 격리 치료에 들어갔다.

라이트볼은 귀국 직전 병세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볼이 속한 기독교 선교 단체는 라이트볼이 아프리카를 떠나기 전 남편에게 평소 즐겨먹는 라이베리아의 전통 감자수프와 커피를 주문할 정도로 식욕이 좋아졌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라이트볼은 지난달 31일 미국국립보건원이 보낸 실험용 에볼라 치료제 '지맵'을 복용한 뒤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중국 윈난 강진 사망자 589명 (5일)현지시간) 중국 윈난성 자오퉁시 루뎬현의 지진 현장에서 한 여성이 가족 앨범을 보며 오열하고 있다. 지난 3일 발생한 규모 6.5의 강진으로 이날 현재 사망자는 589명으로 늘었다. 앞서 전날 오후까지 중국 정부가 밝힌 실종 피해는 사망 410명, 실종 12명 등이었다. /로이터 연합뉴스

美 5세 '꼬마 시장', 3선 도전 실패

낙마에도 밝은 모습…"두 살 동생에게 다음 출마 권유"

미국 미네소타주 작은 마을 도셋의 5세 '꼬마 시장'이 3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

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꼬마 시장 로버트 '보비' 터프츠(사진)는 이틀 전 연례 마을 잔치 때 치러진 시장 선거에서 16세 고교생 에릭 밀러에게 아쉽게 패했다.

미니애폴리스 북서부에 위치한 도셋은 전체 인구가 9~28명에 불과한 마을이다. 주민들은 축제 때 재미삼아 기부로 시장을 뽑는다. 터프츠는 지난 2012년 만 3세 때 참가비 1달러를 내고 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재임 기간 인접한 노스다코타주 파고의 한 단체를 위해 자선기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터프츠는 시장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다. 그는 "이제는 시장직을 넘겨줘야 할 때"라며 "두 살인 동생 제임스에게 시장 출마를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터프츠의 부모는 "마을이 쉴 시간을 얻어 기쁘다"며 "오는 204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정치 이력을 쌓았다"고 농담했다.

/조선미기자

못 위에 1시간 동안 서 있기?

metro Russia

'공포 없는 삶' 축제 개막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2014 공포 없는 삶' 축제가 개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축제는 인간 내면의 공포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자는 취지로 2010년부터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지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축제 관계자인 발레리 보츠카료프는 "공포 극복 프로그램, 전문가 초빙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자신과의 싸움에 도전한 막심 바루즈딘의 도전이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 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힘센 사나이로 불리는 막심 바루즈딘은 17t짜리 대형 트럭을 15m나 끌어 초인적 힘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50명이 넘어 1시간 동안 못 위에 서는 릴레이쇼 행사도 열렸다. 그는 "1시간 동안 못 위에 서 있는 일은 누구든 할 수 있다.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침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율고 솔가보바 기자 · 정리=조선미기자

휴대전화 만졌다고 아기 살해

metro Brazil

브라질에서 한 여성이 휴대전화 때문에 자신의 아기를 살해해 이웃집 소파에 유기하는 반인륜적인 사건이 일어나 전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다.

평범해 보이는 휴대전화 한 대. 이 평범한 전자기기가 두 살배기 아이 살해사건의 이유가 됐다. 자신의 아기를 죽음으로 몰아 넣은 비정한 어머니가 휴대전화가 살인의 이유였다고 경찰에 증언했기 때문.

증언에 따르면 그는 아기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만지려 했기에 매우 화가 났다고 진술했으며 만지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아기를 잡아 벽으로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아기가 죽은 것을 알게 된 그는 옆 집의 소파에 시신을 숨기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기도 해 주변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이웃이 사망한 아기의 삼촌이었기 때문에 집열쇠를 갖고 있던 것.

그 다음 날이 되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그는 신고 3일 뒤 소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집 주인이 소파를 뜯어 아기의 시신을 발견함으로써 덜미를 잡히게 됐다.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공동묘지 유골 일부 땅 위로 '오싹'

metro France

프랑스 파리 외곽에 위치한 한 공동묘지에서 다량의 시신이 땅 위로 나와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일(현지시간) 일간지 파리지엥은 블로뉴 빌랑쿠르 공동묘지에서 유골들이 땅 위로 나와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묘지 내엔 손가락 뼈, 턱관절, 척추뼈 등이 땅 위에 나와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위여부를 밝히기 위해 해당 지역의 시장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된 상황. 시장은 지난 7월 한 달간 내린 비의 여파로 토양이 쓸려나가 유골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도내용이 과장됐다고 강조하며 "이 공동묘지에선 자바 묘소를 사용하지 않고 매장한다. 8만여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규모도 큰 편이다"고 설명했다.

/모르가 본포아 기자 ·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2060.73 (-5.53)	548.43 (+0.68)	2.54 (+0.02)	1032.70 (+3.50)

뉴스&뉴스

한 여름에 즐기는 겨울왕국 6일 오전 경기 부천 웅진플레이도시 스노우파크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양오염 기준 초과

환경부는 6일 지난해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8588곳 중 2.8%인 242곳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검사대상에 오른 8588곳 중 석유류 저장시설은 8467곳이며 유독물 시설은 121곳이다.

석유류 저장시설 중 239곳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는데 유형별로는 주유소 196곳, 산업시설 25곳, 기타시설 18곳 등으로 분류됐다.

/김두탁기자 kimdt@

태영·코오롱 담합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고양시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7월 입찰 공고한 예산 500억 규모의 수질복원센터 공사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하고자 투찰률을 합의했다.

/황재용기자 hoan@

삼성·애플 "황색 태풍 잠재우자"

갤럭시 노트4·아이폰6 하반기 출시… 시장 판도 변화 '주목'

Issue&View 글로벌 스마트폰 전쟁

/이재영 정윤지기자 ...@metroseoul.co.kr

삼성전자와 애플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 '아이폰6'를 하반기 출시하며 중국발 스마트폰 태풍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달 3일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노트4'를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이날 공개한 '삼성 언팩 2014 에피소드2'라는 제목의 초대장에 따르면 다음달 3일 국제가전전시회(IFA)가 열리는 독일 베를린을 메인으로 중국 베이징, 미국 뉴욕에서 행사를 각각 개최한다.

비록 행사 초대장에는 이번 언팩 행사에서 어떤 제품을 공개할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초대장에 갤럭시 노트의 상징인 노트와 펜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갤럭시 노트4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리코드에 따르면 애플도 다음달 9일 언론을 상대로 여는 대규모 행사에서 '아이폰6'를 공개한다.

이날 '아이폰6' 공개 행사가 열린다면 기존 관행을 고려할 때 아이폰6의 출시일은 그 다음주 금요일인 19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두가지 모델로 출시?

이번에 공개되는 갤럭시 노트4와 아이폰6는 각각 두가지 모델로 출시될 것이라는 설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갤럭시 노트4가 5.7인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모델과 QHD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는 두가지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스냅드래곤 805나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5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을 적용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4GB 램, 128GB 내장 메모리, 배터리 용량은 3600mAh에서 3800mAh를 탑재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 아이폰6 역시 전작보다 화면 크기를 키운 4.7인치와 5.5인치 두가지 모델로 출시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A8 프로세스를 탑재했으며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지원하고 기압계 센서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발 스마트폰 태풍 반격

글로벌 시장에서 샤오미, 화웨이 등을 앞세운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성장세가 거세진 가운데 삼성전자와 애플은 갤럭시 노트4, 아이폰6 출시를 통해 반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 2분기 북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1위에 오른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에도 시장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목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2분기 북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집계한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는 36.2%를 기록하며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점유율 27.9%의 애플, LG전자는 11.9%로 3위였다.

업계는 삼성전자 '갤럭시S5'가 2분기 북미 시장에 출시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중화권 스마트폰 제조사 중에서는 ZTE가 6.1%로 2분기 북미 시장 4위, HTC는 3%로 7위에 올랐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꺾으며 돌풍을 일으킨 샤오미는 순위안에 들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나란히 3분기 갤럭시 노트4와 아이폰6를 출시하며 시장 판도를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품 혁신성만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재도약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구 회장 미국 현장 방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파운틴밸리시 현대차 미국판매 법인 신사옥을 방문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종신보험 리콜조치

금융감독원은 여러 해 판매로 소비자가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으로 착각하고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에 대해 판매중단, 리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 상품은 더스마트 연금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동부), 수호천사은퇴플러스통합종신보험(동양), 연금전환되는종신보험(미래에셋), 행복한평생안심보험(신한), 노후사랑종신보험(우리아비바), 종신보험-생활자금형(현대라이프), 평생보장보험U3(흥국), 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KB), 연금탈수있는종신보험(KDB) 등 9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해당 금융회사 9곳의 경영진과 면담을 실시한 결과, 보험계약자의 피해 위험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율적인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했다.

이미 판매된 상품은 리콜, 자체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신보험을 이처럼 오인해 가입한 뒤 조기에 무효·해지하는 불완전판매 비율이 21.4%로 다른 상품(5.8%)의 4배에 달했다.

중도급부금이있으면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3.75% 수준의 고금리인 보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형 상품이라는 점 ▲연금 전환시 최저 보증이율이 1%대로 하락하는 점을 인지하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정기자 hkim@

'기업호감도' 추락… 보통수준(50점) 밑돌아

대한상의, 수출경쟁력 약화·경제침중 원인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재하락하며 보통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현대경제연구원은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상반기 기업호감지수(CFI)'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47.1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기업호감도 지수는 2011년 하반기 이후 3반기 연속 하락하다 지난 반기 51.1점까지 상승했지만 1반기 만에 다시 하락세로 들어섰다.

기업호감지수란 국민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국가 경제 기여 ▲윤리경영 ▲생산성 ▲국제 경쟁력 ▲사회공헌 등 5대 요소와 전반적 호감도를 합산해 산정한다. 100점에 가까우면 호감도가 높은 것이고 0점에 가까우면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요소별 점수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 호감도(49.2점→45.5점)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생산성 향상(67.8점→61.3점)', '국제경쟁력(76.6점→71.2점)', '국가 경제 기여'(54.5점→49.6점), '윤리경영 실천(25.2점→22.1점)', '사회공헌 활동(41.9→39.0)' 등 모든 요소에서 점수가 하락했다.

대한상의는 "상반기 경제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심리가 충족되지 못했고,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기업호감지수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균기자 kms@

연금복권520 제162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4조	755276
		7조	735802
2등	1억원	1등의 앞뒤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368553
4등	100만원	각조	23511
5등	2만원	각조	712
6등	2000원	각조	53 69
7등	1000원	각조	1 2

출처 : 나눔로또 공식홈페이지(www.nlotto.co.kr)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경희궁길) 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8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업·편집인 김종탁
편집제작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8 3
독자센터 02)721-9861
2005년 5월 31일 정기간행물등록 서울특례시 가00098

안전, 완벽&수익

꼼꼼한 김생민이 체크한 포스큐 역시 서울 최고!!

직장인도 건물주가 될 수 있어요!!

소형 부동산 투자시 체크사항	포스-Q는 100%충족	
1. 경쟁력 있는 지역인가?	서울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1위 구로지역(구로동 공원로 11)	✔
2.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가?	대림역 470M/구로역 1.2KM/신도림역 1.4KM	✔
3. 대로에 접해 있는가?	폭 75M 대로에 위치! 방범/치안 완벽!	✔
4. 브랜드 있는 시공사인가?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플랜텍(토목 사공분야 국내 1위)	✔
5. 대단위 세대인가?	지하 4층 지상20층 464세대	✔
6. 분양가가 합리적인가?	주차장법 개정 이전 허가된 프리미엄 매물! 4년전 분양가 1억2천만원대!	✔
7. 임대수익이 즉시 발생 할 수 있는가?	준공즉시 보증금 1천만원 월65만원 임대수익!! (G밸리 25만여 명의 상주인구를 배후 임차 수요로 확보!)	✔
8.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적절한가?	연9%에 달하는 높은 임대수익 가능(금융 융자 활용시)	✔
9. 희소성 있는 수익형 부동산인가?	트리플 역세권과 거리공원에 위치한 구로동 미지막 수익형 오피스텔	✔

하루평균 유동인구 약 12만명 구로디지털단지

하루평균 유동인구 약 12만명 가산디지털단지

축복받은 1순위 입지 신도림

2차 분양오픈이벤트

분양계약 하신 고객님께 푸짐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3실 계약시 루이비통 명품백
6실 계약시 삼성 TV
9실 계약시 K3자동차

464세대 대단지!

포스코플랜텍과 신탁회사가 철저하게 분석 시공한 서울 최고 입지 pos-Q

- 교통Q 강남(약 30분) 접근이 용이한 대림역(2,7호선) 도보 약 5분
- 생활Q 홈플러스, 테크노마트, CGV, 이마트, 애경백화점 등 멀티인프라
- 건강Q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도림천 근접. 자전거도로, 산책로로 갖춰진 녹지환경
- 수요Q 20만여명의 대한민국 대표산업단지 서울디지털단지(구로/가산)
- 절감Q 부분외벽석재 사공, 태양광발전, 로이유리로 난방 및 관리비 DOWN

posco 포스코플랜텍 · (주)커런험

분양문의 1588-3358

중국 펀드 살아날까… 수익률 '훈풍'

정부 정책 기대감에 본토 투자 강세 전환

중국 증시가 정부의 정책 기대감에 반등 조짐을 보이자 중국 펀드의 수익률도 덩달아 강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의 강세 전환이 두드러졌다.

6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 260개(설정액 10억원 이상) 가운데 홍콩H주 관련 139개는 지난 5월 기준으로 연초 대비 4.20%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중국본토에 투자하는 펀드 109개는 0.12% 오르는 데 그쳤다.

그러다 지난 달부터 흐름이 달라졌다. 중국본토 펀드가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았다.

신규 설정된 펀드를 포함한 중국본토 펀드 113개는 최근 1개월간 6.77% 급등하며 상반기 부진을 씻어냈다. 같은 기간 홍콩H주 펀드 147개가 연초 대비와 별반 다를 없는 4.60%의 수익을 올린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포함, 경기부양을 위해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재정지출을 확대할 계획을 밝히자 정책적 기대감이 작용했다.

이에 을 들어 2000선 붕괴를 걱정하는 등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상하이종합지수가 반등의 기점을 만들었다.

지난 달 들어 점차 상승 흐름으로 들어서더니 지난 달 말에는 8개월 만에 2200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박중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이 중국 증시를 좌우하는 핵심변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러한 패턴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중국 금융당국이 시중에 푸는 유동성이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3월부터 차별적 지준율 인하와 재대출 정책 등으로 소규모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달부터는 담보보완대출(PSL)과 차별적 금리인하 등 본격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성연주 대신증권 선임연구원은 "인민은행이 이 같은 새로운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에 집중됐던 자금 지원을 중소형 기업 등 민간으로 확대하려는 데 있다"며 "3분기 유동성 공급량은 전 분기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첫 주택 주택담보금리를 깎아주고 23개 도시에 대해 구매제한 완화 정책을 적용한 조치가 주택 수요의 분위기를 되살릴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중·하순부터 중국 2~3선 도시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후강퉁(상하이A-홍콩 교차매매) 제도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 투자자들도 홍콩을 통해 상하이 상장주식에 투자할 길이 열린다. 더불어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 방침 등 중국의 점진적인 금융시장 개방 확대 방향이 주가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흐름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김중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완화되면서 증시 반등으로 이어졌다"며 "예전과 같은 고도 성장세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으므로 단기 기대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이달 약간 쉬어갈 수 있으므로 투자 시점으로 괜찮다고 본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연말 중국경제공작회의에서 발표될 내년 정책 향방을 점검한 뒤 투자 판단을 내리는 편이 좋다"고 전했다.

/김은희기자 hjkim1@metroseoul.co.kr

LG 복고풍 TV 출시 LG전자가 복고풍 디자인의 42인치 클래식 TV(42LB6400)를 6일 출시했다. /LG전자 제공

아파트 속 호텔 '게스트하우스' 인기

주말 이용위해선 1~2개월전 예약 필수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A씨. 관광 겸 비즈니스차 부산을 찾은 거래처 임직원의 숙소를 구하지 못해 낭패를 볼 뻔 했으나 때마침 비어있던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해 위기에서 벗어났다. 특급 호텔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었던 것은 물론이고, 훌륭한 손님 대접을 받았다고 만족해하는 클라이언트와 관계까지 돈독해진 것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인근에 공급 중인 '트리마제' 게스트하우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휴가철을 맞아 아파트 게스트하우스가 효자 커뮤니티시설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관광지인 해운대 인근 아파트에서 게스트하우스의 인기가 높다. 부산은 피서철에는 호텔은 물론 여관 구하기도 어려워 지인들의 숙박 의뢰가 많은 지역이다.

현재 해운대구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가 한실, 양실, 혼실로 구분된 총 9개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중이다. 주말에는 최소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룸 확보가 가능하다. 인근 '해운대 아이파크'도 특실 2개, 일반실 2개 등 총 4실의 게스트하우스가 있다.

이 외에도 서면 더샵 센트럴스타, 더샵 아델리스, '부산 아스타', 트럼프 월드마린', 더샵 센텀스타 등에 게스트하우스가 마련돼 있다. 가격은 각 단지와 게스트하우스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3만~10만원 수준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최근 공급되는 아파트들도 게스트하우스 도입에 적극적이다. 서울숲 일대 분양 중인 '트리마제'와 용산역전면3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용산'은 도심·한강 등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호텔급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또 광교신도시에 선보인 '광교 더샵 레이크파크'는 오피스텔임에도 테라스형 게스트룸을 조성했다.

/박선옥기자 pso53@

정부가 소득 재분배의 핵심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한다.

'3대 패키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근로소득 증대 세제, 배당소득 증대 세제다.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보내기 위한 세제로,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단일세율 10%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투자와 인건비 증가액, 배당액을 합친 금액이 당기 소득의 60~80%, 인건비 증가액과 배당액이 당기이익이 20~40%가 되는 경우를 2개의 기준선으로 두고 기업이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임금 증가 기업에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식.

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 강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사용한 체크카드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강화된다.

6일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 경제부총리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확대하겠다"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한해 추가 10%가 공제된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할 수록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인데 이는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다만 연말 정산 시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 사용액보다 커야 한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2013년 연간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만 공제율 40%가 적용된다.

예컨대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액이 500만원인 근로자는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절반인 200만원을 뺀(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액-지난해 체크카드 등 사용액×50%) 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 300만원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제 금액이 30만원 늘어난다.

[세법개정] 무슨 내용 담았나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문창용 조세정책관 등이 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연말정산 시에도 역시 올해 연간 총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사용액보다 커야만 추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들어 A 근로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 신용카드 1250만원에 상반기 200만원과 하반기 500만원을 사용해 체크카드로 총 700만원을 썼다면 240만원을 공제받는다.

현재는 2015년 연말 정산 때 210만원을 공제받지만 개정안[(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등 사용액-2013년 연간 체크카드 등 사용액×50%)]에 따라 증가분에 대해 40%가 공제 되는 것이다.

만약 지난해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전혀 없다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사용액은 전액 증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일몰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로 2년 연장키로 했다. 이때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 유지된다.

/박여진기자 [email]

고배당 주식 세율 낮춘다

정부가 국내 증시의 배당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주식에 대한 세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낮춰준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증대 세제안 가운데 고배당 주식에 대한 세율이 3년간 한시적으로 낮아진다.

고배당 기업의 소액주주 원천징수세율도 기존 14%에서 9%로 낮출 예정이다.

연간 배당소득이 500만원인 소액주주의 경우, 현행 14% 세율로는 70만원의 배당소득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4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36%의 세 부담이 감소하는 셈이다.

고배당 의사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이 큰 대주주에게 혜택을 주려는 조치다.

현행 종합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38%로 배당세액공제제도까지 감안했을 때 실제 세 부담은 31% 수준이다.

이들이 25% 분리과세 단일 세율을 적용받으면 20%의 할인 효과가 생긴다.

이는 소액주주의 세 부담 감소율(36%)보다는 작은 수준으로 차등 혜택을 준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곳은 고배당 기업으로 한정됐다.

고배당 기업은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인 상장주식과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50% 이상이며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이다.

또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이 직전년도 배당에만 좌우되지 않도록 배당성향·배당수익률 요건을 3개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김현정기자 [email]

대형아파트 관리비 1만원 늘어나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의 비과세 감면 정비 분야에는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에 부가가치세(VAT)를 과세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렇게 되면 전용면적 135㎡를 넘어서는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가 내년부터 월 1만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포함)의 관리 경비·청소용역은 일률 없이 VAT를 면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면제할 예정이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85㎡~135㎡)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감안해 VAT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3% 수준인 약 30만호에 달한다.

가구당 세부담 증가는 지역과 면적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연간 10만~14만원으로 매월 3000원에서 1만306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 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 끝)에서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압구정동 A아파트의 전용면적 140㎡의 경우 연간 18만원(월 1만5000원) 수준의 관리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정부는 추정했다.

부가세가 새로 부과되는 영역은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로 전체 관리비 구성 항목의 37%에 달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비과세·감면 분야는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과세 형평을 저해하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되 농어민·중소기업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유지했다.

/김두탁기자 [email]

앱스토어 해외개발자 앱에 부가세

구글·애플 앱스토어 해외개발자 앱에 부가세

내년 7월부터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해외 개발자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앱)을 구매하면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국내 오픈마켓의 국내·해외 개발자 앱과 해외 오픈마켓의 국내 개발자 앱에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에서다.

앱에 매겨진 부가가치세는 개발자나 오픈마켓 사업자가 납부하도록 돼 소비자가 직접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발자·사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도 간접적으로 앱 가격 인상의 여파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에서는 SK플래닛, KT 올레마켓 등 국내 오픈마켓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하는 모든 앱과 음악, 영화파일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국내 개발자는 직접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고, 해외 개발자의 경우에는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 등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국내 개발자의 전자적 용역에 10%의 부가세를 매겨 개발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해외 개발자의 전자적 용역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해외 오픈마켓의 해외 개발자 전자적 용역에도 부가세를 매기고,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민준기자 [email]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1년새 57개로 줄어

롯데 41개·삼성 9개 해소… 금지법 시행 영향 능동 대처

순환출자 고리로 지배구조가 그물망처럼 엮인 13개 대기업 그룹이 1년새 고리수를 107개에서 절반이 넘는 57개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장 많은 순환출자 고리를 가진 롯데(51개)와 삼성그룹(16개)이 50개의 고리를 정단해 대부분을 자지했다.

6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상호출자제한 49개 기업집단 중 순환출자(환상형) 고리를 보유한 13개 그룹의 지분구조를 조사한 결과, 지난 달 31일 현재 고리 개수는 50개로 집계됐다. 지난 해 4월 107개와 비교하면 절반 이상인 57개(53.3%) 고리가 끊어졌다.

이는 지난달 25일 시행된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에 따라 대기업이 기존 고리에 대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만큼 한발 앞서 해소작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가장 많은 고리를 가진 롯데와 삼성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롯데는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알미늄→롯데제과 등으로 얽혔던 51개(2013년 4월)의 고리를 지난달 말 10개로 41개 줄였다. 롯데는 각 계열사가 지닌 그룹사 지분을 순환출자 고리의 핵심인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등에 몰아줘 출자구조를 단순화했다.

롯데카드는 롯데칠성음료 지분 1.59%를 롯데제과에 매도해 15개 고리를 끊었다. 롯데건설과 대홍기획은 롯데상사 지분 5.97%와 1.13%를 롯데쇼핑으로 넘겨 10개와 2개의 의 연결을 재단했고, 롯데리아는 롯데알미늄 지분 1.99%를 롯데케미칼로 넘겨 11개의 고리를 해소했다.

롯데홀딩스 등 일본 자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지배구조 핵심 계열사인 호텔롯데도 롯데건설 지분 2.37%를 매수해 19개 연결 고리를 끊었다.

롯데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6개의 고리를 가진 삼성은 1년새 9개를 정리하며 계열사간 순환출자 해소에 나섰고, 금산분리(산업자본과 금융의 분리)의 사전포석을 뒀다.

삼성은 지난해 말 삼성전기와 삼성물산이 삼성카드 지분 3.81%와 2.54%를 삼성생명으로 넘기며 지분정리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6월 5일 삼성카드가 제일모직 주식 4.67%를 삼성전자에 매도해 2개 고리를 절단했다. 같은 달 18일에는 삼성생명이 삼성물산 지분 4.65%를 삼성화재에 넘겨 6개 고리를 추가로 끊었다. 7월에는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지분 4%를 삼성SDI로 매각해 2개의 고리를 끊었다.

동부는 동부제철→동부생명→동부건설→동부제철로 이어진 순환출자 고리 5개가 재무구조 개선 과정에서 모두 해소됐다. 금융부문은 수직계열화됐고, 계열은 지분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했다.

동부제철과 동부캐피탈은 동부생명 지분 6.45%와 4.99%를 지난해 말 동부화재로 넘겼고, 동부생명은 이에 앞선 2013년 6월 동부건설 지분 3.34%를 동부CNI로 매도해 고리가 끊어졌다.

/김태균기자 kazi@metroseoul.co.kr

삼성-애플, 화해모드 돌아서나

미국 제외 국가서 특허소송 철회

그동안 특허전쟁으로 갈등 상황이 지속된 삼성전자와 애플이 화해 모드로 돌아섰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양사가 진행해 온 모든 특허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양사의 특허 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양사는 현재 미국 외에 일본,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호주, 스페인 등 9개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다만 이번 합의는 양사간 특허 라이선싱 협의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며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록 미국에서의 소송은 계속되지만 날선 소송전을 이어온 양사의 관계에 대해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양사는 앞서 지난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에 대한 항고를 나란히 취하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애플은 지난달 28일 자사가 승소한 미국 1차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도 당시 애플의 항소 취하 이후 양사가 점차 합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내다보기도 했다.

다만 양사간 진정한 화해 모드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미국 소송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양사 간 미국 1차 소송의 항소심이 곧 열릴 예정이고, 2차 소송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illegible]

SK 글로벌 해피노베이터 캠프 6일 부산시 덕천동 소재 덕천초등학교에서 진행 중인 '2014 하계 글로벌 해피노베이터 캠프'에서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써니 한중 대학생들이 창의 인성교육 콘텐츠 발굴을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SK 제공

캐리어에어컨, '미니 와인셀러' 출시

캐리어에어컨이 '2014년형 캐리어 미니 와인셀러(CSR-37WS)'를 6일 출시했다.

2014년형 캐리어 미니 와인셀러는 12병의 와인 적재 용량을 갖췄으며 전면 미러 글라스 타입과 심플-블랙 디자인을 채택했다.

특히 반도체 냉각 방식을 사용해 70W 소비전력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친환경적인 제품이다. 하단에는 화장품 적재가 가능해 공간 실용성을 높였다.

와인 보관 전용 제품으로서 와인의 특성을 반영한 기능이 돋보인다.

내부 환기시스템은 와인 코르크 마개 주변의 냄새를 제거해 코르크 마개가 냄새를 흡수하는 것을 차단, 와인의 향을 오래도록 지켜준다.

또 전자식 온도조절 기능으로 11~18℃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70% 정도의 일정한 습도를 유지시켜 와인을 최적의 조건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밖에 컴프레서를 사용하지 않은 반도체 냉각방식의 무진동 설계로 인해 진동으로 인한 노화 맛과 향에 변함이 없어 와인 고유의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저소음으로 실내 환경까지 신경썼다. /이재영기자

캐리어 미니 와인셀러

LG유플러스, U+포토 사진인화 앱 이벤트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가 U+포토 사진인화 앱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증정 및 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U+포토 사진인화 앱은 사진 인화부터 액자 등 관련 액세서리 구입까지 사진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앱 하나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진인화 서비스다. U+포토 사진인화 앱은 통신사 상관없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소셜커머스인 위메프에 론칭 기념으로 오는 31일까지 사진인화 서비스를 주문한 고객중 매일 10명에게 비타민음료 증정과 U+포토북 쿠폰 2만원권을 증정한다. 앱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1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그간 온라인 사진인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연결한 후 사진을 내려받고 이를 다시 업로드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웠다. U+포토 사진인화 앱은 스마트폰의 사진을 PC로 옮길 필요없이 앱에서 바로 업로드 할 수 있어 터치 몇번만으로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다.

김주영 클라우드시엔팀장은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을 스마트폰속에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고객이 많다"며 "여름휴가 기간의 소중한 추억을 방치하지 말고 U+포토 사진인화 앱으로 인화해 오래도록 간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LG유플러스가 U+포토 사진인화 앱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쿠폰과 경품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LG유플러스 제공

구글은 현대판 '빅 브라더'

지메일 계정 감시 사실로 드러나 충격

구글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재차 휩싸이면서 현대판 '빅 브라더'로 지목되고 있다.

구글의 메일서비스인 지메일을 사용자 몰래 감시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5일 미국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구글이 지메일 계정을 살피다 아동 음란 영상을 유포하려던 남성을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어린 소녀의 음란 사진을 e메일로 친구에게 보내려던 휴스턴의 존 스킬런(41)의 신원을 아동보호 기관인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NCMEC)에 알렸고 NCMEC는 이를 즉각 휴스턴메트로아동인터넷범죄 수사반에 신고했다.

20년 전에도 8살 소년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는 스킬런은 음란물 소지와 유포 혐의로 체포됐다.

현재 지메일에서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e메일을 자동 검색하는 구글은 스킬런의 e메일에 남긴 음란 사진을 포착했다.

구글은 지난 4월 지메일 서비스 이용자가 주고받는 모든 메일 내용이 소프트웨어를 거쳐 자동으로 분석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약관을 변경했다.

미국 언론은 누구든 아동 착취 음란 사진을 보면 신고하도록 한 연방법을 따른 구글의 행동을 칭찬하

구글이 현대판 '빅 브라더'로 지목되고 있다. 구글 독일 지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의 모습 /AP 연합뉴스

면서도 사용자의 e메일을 뒤진 구글의 처사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구글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미국 정보 당국에 제공한 전례에 비춰 볼 때 이번 무작위 e메일 검열 사건이 또 한 번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해 상반기 9000명을 표적으로 삼아 e메일과 채팅 내용을 뒤져 이를 정보 당국에 제공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증폭시킨 바 있다.

이 뿐 아니다. 구글은 지난 7월 무선 인터넷망을 활용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다 미국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다.

'빅 브라더' 논란이 일자 구글 측은 "지메일 사용자들은 메일 내용이 완벽히 보호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며 약관 변경에 따른 적법 행위이자 지메일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람이 아닌 기계가 e메일 내용을 검색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다수 지메일 이용자들은 "구글이 사람들을 범인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9월18일 대만·25일 싱가포르 16강

온라인 게임, 월드컵 하반기 일정 공개

'리그 오브 레전드 (이하 롤)' 최대 이벤트의 상세 일정이 확정됐다.

국내 1위 온라인 게임 '롤'의 개발 유통사인 라이엇 게임즈는 2014 시즌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이하 월드컵) 전체 일정을 6일 발표했다.

월드컵은 9월18일 대만에서 진행되는 16강 조별예선을 시작으로 10월19일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피날레를 맞이한다.

10월19일에 열리는 월드컵 결승전은 오후 3시 30분부터 위풍 오프닝 쇼에 이어 4시에 개막한다.

준결승은 10월11, 12일에 진행되며 오후 5시부터 준결승 본경기가 펼쳐진다. 부산에서 열리는 8강전 4경기는 10월3일부터 6일까지 하루에 한 경기씩 열린다.

대만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조별 예선 경기는 각각 9월18일부터 21일, 9월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16개팀은 4팀씩 4개조로 나뉘어 2개조는 대만, 다른 2개조는 싱가포르에서 예선을 치른다.

같은 조에 속한 팀들끼리 서로 2번씩 대전하게 됨에 따라 조당 24경기씩 치른다.

아울러 월드컵 공식 사이트(http://worlds.leagueoflegends.co.kr)도 오픈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월드컵 소개를 비롯해 과거 대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역대 대회 관련 영상과 화보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 예선 경기 결과도 조만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라이엇 게임즈는 팬들이 단체 관람에 적합한 서울 시내 영화관 한 곳을 대여해 조별 예선 전 경기를 중계한다.

구체적인 장소다 현장 이벤트 등의 세부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승현 라이엇 게임즈 한국 대표는 "본격적인 월드컵을 40여일 앞두고 라운드 별 일정이 공개됐다. 선수들이 수준 높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2014 시즌 LoL 월드 챔피언십 일정표

	장소	일시 (한국 시간)	일시 (현지 시간)
조별예선	대만	2014. 09.18~21 오후 6시	2014. 09.18 오후 5시
	싱가포르	2014. 09.25~26 오후 6시 09.27~28 오후 3시	2014. 09.25~27 오후 5시 09.27~28 오후 2시
8강	부산	2014. 10.03 오후 5시 10.04~05 오후 2시 10.06 오후 5시	
4강	서울	2014. 10.11~12 오후 3시	
결승	서울	2014. 10.19 오후 4시 (개막식 : 3시 30분)	

아프리카 먹방, 겜방 TV서 본다

6월부터 크롬캐스트 지원

아프리카TV의 겜방(게임 방송) 먹방(먹는 방송) 공방(공부 방송)을 거실의 대형 TV에서 볼 수 있다.

구글 크롬캐스트를 통한 아프리카TV 앱 서비스를 6월부터 정식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크롬캐스트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검색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큰 TV화면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온라인영상서비스(OTT) 기기다.

크롬캐스트를 TV에 연결한 뒤 아프리카TV 앱을 실행하면 실시간 평균 5000여 건, 일 평균 누적 10만 건에 달하는 BJ(Broadcasting Jockey·콘텐츠 제작자)들의 방송 콘텐츠를 스마트폰은 물론 TV화면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디지털 가상화폐 가치는…

IT도 인문학이다
/박성훈기자 zen@

조개, 소금, 맥주, 돌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한때 '결제 수단'으로 이용됐던 물건이다. 즉 돈의 역할을 했다.

조개(장대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품목들은 높은 가치를 지녔다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소금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나트륨을 공급하고, 맥주는 밀아 효모가 선물하는 특유의 영양 덕에 음식으로도 쓰였다.

돌리은 유럽 사람들의 수집 욕구와 심미안을 키우는 등 정신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신사임당이 그려진 5만원 지폐의 제조 원가는 약 210원이다.

결국 우리는 제조원가의 250배에 달하는 가치를 종이 한 장에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1971년 전까지만 해도 금

보유량 만큼 돈을 만들고 유통할 수 있는 '금본위제'가 존재했지만 교역 규모가 커지고 화폐 쓰임새가 늘면서 사라졌다.

이처럼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화폐의 가치는 적힌 숫자 만큼 누구나 인정한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디지털 가상 화폐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 싸이월드의 도토리,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넥슨 캐시 등이 좋은 예인데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

2009년 등장한 비트코인은 쉽게 말해 디지털 광산에서 캐낸 금이라 할 수 있다. 수많은 컴퓨터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일종의 수학문제를 풀어 맞추면 비트코인이 발생한다.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현재 약 60만원인데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6배나 오른 것이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해 11월 "비트코인이 자금세탁 등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유망한 결제 수단"이라고 말하면서 120만원까지 올랐다.

이후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곡스가 컴퓨터 해킹으로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해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반토막'이 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돈을이 나오면 항상 겪는 통과의례임을 강조하면서 비트코인의 밝은 미래에 주목한다.

요즘 뜨는 사물인터넷과 비트코인은 찰떡 궁합이다.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음식 재료를 준비하는 스마트 냉장고. 가까운 미래에는 이 녀석이 비트코인으로 배추, 고추장, 설주, 생수를 주문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사람이 아닌 기계에도 지갑(비트코인 계좌)을 쥐어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자동차 스스로 기름을 넣은 뒤 결제를 하는 것도 비트코인이 있어 가능하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지금 이순간 익스피디아닷컴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비행기와 호텔을 잡아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다.

무더위 식히고 추억도 만드는 암흑의 세계!

이색적인 어둠체험 장소 인기

열대야를 동반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기는 하지만 마른 장마로 실제 느끼는 더위는 더욱 심하다. 이에 더위도 피하고 특별한 추억도 남길 수 있는 이색적인 어둠체험 장소들이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등골 오싹한 공포가 온다!

부산 해운대에서는 이색 공포체험관이 수가를 높이고 있다.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의 '호텔다크둥'으로 이 곳에서는 바다와 공포 호텔 이야기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환타지와 호러를 접목시킨 '3D 좀비 호러존'과 할리웃 스타일의 좀비 특수 분장과 특수 효과로 구성된 '리얼 좀비 호러존' 등이 있다. 실물과 흡사한 캐릭터가 원격 조정으로 움직여 등골 오싹한 공포감을 준다. 더욱이 커플이면 입장료가 할인돼 여름 이색 데이트로 안성맞춤이다.

◆시원한 맛이 살아있는 '암흑식당'

시각장애 체험 레스토랑으로 잘 알려진 서울 지하철 건대입구역 인근의 '블라인드 아트 레스토랑'은 전 세계에서 10군데 밖에 없는 '암흑식당'이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 중인 이곳은 빛 한 점 없이 어둠 속에서 식사를 할 수 있어 평소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어둠 속에서 목소리에만 집중해 대화할 수 있어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레스토랑은 골드, 실버테마의 두 가지 코스요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료 또는 주류를 추가 선택하면 시연 신청을 할 수 있다.

◆시각을 뺀 모든 감각을 깨워라!

관광의 명소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박물관은 살아있다' 인사동 본점에서는 어둠 속에서 웃음을 찾는 놀거리 '다크룸 에피소드Ⅰ'을 만날 수 있다.

에피소드Ⅰ은 '불을 끄고, 감각을 켜다'라는 주제로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시각을 제외한 4개의 감각을 극대화해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니모룸 ▲미션룸 ▲디널의 집 ▲커플룸 등 총 7개 코너로 구성돼 있다. 공간마다 주어지는 미션을 참가자들과 함께 해결해야 다음 코스로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할 수 있어 썸남썸녀에게 인기가 많으며 더위를 피할 데이트 장소로도 제격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어둠 속에서 웃음을 찾는 놀거리 '다크룸 에피소드Ⅰ' 게임을 하며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람들(위)과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아래) /박물관은 살아있다 제공

유아 항공기 탑승, 국내 '무료' 해외 '10%'

스카이스캐너, 만 2세 미만 항공 운임 비교

여행 가격 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가 우리나라에 노선을 운항 중인 주요 일반 항공사의 유아(만 2세 미만) 운임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유아가 보호자와 함께 착석할 때 상당수의 항공사는 동일 국가 이동에는 별도의 운임을 부과하지 않으며 해외 이동 시에도 성인 운임의 10%만을 부과했다.

동일 국가 내 이동 시 별도 운임을 부과하지 않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독일) ▲콴타스항공(호주) ▲에어캐나다(캐나다) ▲유나이티드항공(미국) ▲아메리칸항공(미국) 등 7개다.

또 이들은 유모차 기내 반입은 물론 유아 요람을 무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유아 기내식과 장난감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일부 항공사는 항공권을 체크인할 때 유모차 기내 반입을 신청해야 한다.

유아를 위해 별도 좌석을 구매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항공사가 소아 운임(만 2~12세 미만)을 적용한다.

조사 결과 유아용 좌석 구매 시 항공사의 평균 요금은 성인 운임의 77.5%로 집계됐다. 특히 에어프랑스는 노선에 따라 성인 운임의 15~35%, 아메리칸항공은 30%, 에미레이트항공은 35%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유나이티드항공은 만 2세 미만의 유아라 할지라도 별도 좌석에 앉을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운임을 부과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성인 운임의 75%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5개 저가 항공사들은 일반 항공사와 유사한 운임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저가 항공사들은 기내 서비스 간소화를 통해 비용을 크게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은 국내 이동의 경우 만 2세 미만의 유아에겐 운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에어부산·제주항공·진에어에는 해외 이동 시에도 성인 운임의 10%만 부과하면 이용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2004년부터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 봄 필리핀에서 열린 '트래블 투어 엑스포 2014'에서 한국관광공사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 /한국관광공사 제공

외국인관광객 작년 1200만명 유치

관광공사 보고서 발표… 세계 22위 기록

우리나라가 지난해 세계에서 22번째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2013 방한관광 시장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3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9.3% 늘어난 1217만5550명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 수치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자료를 기준으로 2012년 23위에 비해 한 단계 상승한 수치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 태국 등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순위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은 2004년부터 10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3년 관광 수익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141억 달러로 7년 연속 증가했다.

방한 관광객 중에서는 아시아 지역 관광객이 82.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52.5% 증가한 432만6869명(35.5%)으로 전체 관광객 중 가장 많았다.

입국 시기별로는 대표적인 성수기인 7월과 8월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중이 높았다.

한편 관광공사는 올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11.9% 증가한 13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롯데면세점 경품 교환권 증정

공항철도,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서 이벤트

서울역~인천공항역을 운행하는 코레일공항철도가 휴가철을 맞아 출국객 대상 이벤트를 다음 달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벤트는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아시아나항공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을 마친 서울역~인천공항역 직통열차 이용객이 대상이다. 공항철도는 이들에게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지점 경품 교환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경품 교환권은 출국 전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지점 안내데스크에서 1만원권 선불카드로 바꿀 수 있다. 특히 해당 지점에서 당일 100달러 이상을 구매할 경우에는 공항철도 직통열차 승차권(1매)과 여권지갑이 추가로 주어진다.

한편 공항철도는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직통열차 이용객에게 탑승 수속과 출국심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직통열차 운임은 편도 8000원이며 아시아나항공 등 입주 항공사 이용객은 6900원에 직통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

"견공도 휴가중"… 애견 바캉스용품 인기

애견 호텔도 8월 예약 몰려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애견용 바캉스 상품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아이파크백화점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애견 가방과 목줄, 선글라스 위한 목욕용품 등 반려동물용 나들이 상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65% 신장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휴가 기간 집에 홀로 남는 반려동물을 맡기려는 고객이 몰리면서 애견 호텔도 이달 말까지 80%에 가까운 예약률을 기록했다.

아이파크백화점 서원연 마케팅 팀장은 "애견 혼도 등 반려동물과 함께 피서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애견 바캉스 상품 매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파크백화점 문화관 옥상 동물병원에서 고객들이 애견용 나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아이파크백화점 제공

/서지원기자

'포항 소맥 이모' 홍대에 뜬다

롯데주류, 11일 '소맥 제조 아카데미' 열어

롯데주류는 11일 오후 6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항신포차 홍대점'에서 '포항 소맥 이모'로 불리는 함순복(사진)씨와 함께 '소맥 제조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함순복씨는 소주병을 손에 든 채 손목을 튕겨 열려 있는 잔에 정확하게 소주를 따르고 젓가락으로 소주잔을 돌린 뒤 소주를 따라 잔 안에 회오리를 만드는 등 기발한 소맥 제조 동영상을 올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인물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함순복씨가 스페셜 소맥 용비법 등 다양한 소맥 제조 비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소맥 제조 대회를 열어 함순복씨가 직접 우승자를 가리고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소맥 제조기술 인증카드'를 증정한다.

/서지원기자

전기 없이 '시원한 여름을…'

얼음 물병·셔츠쿨 등 체감온도 낮추는 아이템 눈길

하루 종일 틀어대는 에어컨은 냉방병, 안구건조증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전기료 부담까지 가중시킨다. 무더위가 절정을 달리고 있는 요즘 체감 온도를 낮추는 이색 아이템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더운 날씨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기력이 약한 노인이나 운동량이 많은 아이들에게는 탈수 증세가 나타나기 쉽다. 때문에 평소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당분이 많이 든 탄산음료보다는 휴대용 물병에 물이나 차를 담아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마시는 게 좋다.

시원한 색감이 돋보이는 락앤락의 '아이스 편앤펀 물병'은 친환경 소재 폴리프로필렌(PP)을 사용해 안전할 뿐 아니라 가볍고 내구성이 좋아 야외활동용으로 적합하다. 또 물이나 음료 등을 얼려 먹기 좋아 여름철에 특히 유용하다. 굴곡 중간에 음각 물결 무늬가 있어 쉽게 미끄러지지 않고, 입구가 좁아 물이 한 번에 많이 쏟아지지 나오지 않는다. 물병에 이슬이 맺히는 '결로 현상'을 방지하는 전용 가방도 함께 출시됐다.

계속되는 '열대야'는 얇은 한여름 밤의 불청객. 덮고 자는 이불만 잘 선택해도 시원한 밤을 보낼 수 있다.

이브자리의 '에코휘바 침구 라인'은 자일리톨 성분이 수면 시 몸에서 나오는 수분과 반응해 열에너지를 흡수하고 청량감을 제공하는 기능성 침구다. 특히 에코휘바 라인 중 에코빌은 표면이 오돌토돌한 면리플을 사용한 기능성 여름 이불로 몸에 감기지 않아 시원하다. 그레이와 시원한 그린컬러 내추럴한 나뭇잎 패턴의 조화가 보는 것만으로도 체감 온도를 낮춘다.

30도가 웃도는 날씨에는 방금 샤워하고 나와도 땀이 줄줄 흐른다. 더군다나 외부 이동이 잦고 셔츠를 입어야 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더운 여름을 견디기란 쉽지 않다. 동아제약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 통학하는 학생 등을 겨냥해 신개념 의류용 쿨링 스프레이 '셔츠쿨'을 선보였다.

제품은 에탄올과 L-멘톨 성분으로 구성돼 있어 셔츠, 속옷 등 의류에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3~5회 뿌리면 냉감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약 1~2시간 정도 냉감이 지속된다. 옷을 입은 상태로 사용할 경우는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왼쪽부터 락앤락 '아이스편앤펀물병', 이브자리 '에코휘바 라인'

쿨방석 하나면 업무 능률 '쑥쑥'

개인용 냉방용품 인기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냉방용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옥션에 따르면 7월 4일부터 8월 4일까지 최근 한 달 동안 냉방용품 판매가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했다. 강종일 옥션 가전팀장은 "특히 기업이나 관공서의 경우 실내온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손이나 발, 머리 등 다양한 부위별로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이색 냉방 용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탁상용 선풍기 판매는 같은 기간 15% 증가했다. 대표 제품인 '쿨링형 탁상용 선풍기'는 뒷부분의 클립을 받침대에 끼워서 책상 또는 칸막이 벽, 싱크대 등에 고정해 사용할 수 있는 선풍기로 싱크대 선반에 꽂아 사용하기 좋아 주부들에게도 인기다. 땀이나 냄새로 젖은 발의 건강을 위한 전용 선풍기도 눈길을 끈다. '이엔필의 발 전용 선풍기'는 상단 부분의 스위치를 발로 켜고 끌 수 있으며 지압판이 있어 발 마사지가 가능하다.

블랙아웃에 대비해 시간대별 냉방을 가동하는 사무실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냉방용품도 인기다. 사무실 의자에서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쿨방석과 쿨매트는 같은 기간 20% 판매가 늘었다. 사무실의 경우 많은 인원이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기기의 열기를 낮춰줄 수 있는 쿨링제품도 유용하다. 노트북 거치대에 쿨링판이 있어 노트북 사용 시 나오는 열기를 분산시켜주는 노트북 쿨러는 같은 기간 25% 판매가 증가했다. 손목 보호와 냉각 효과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쿨링손목패드'는 미니스피커 모양으로 마우스를 잡은 손 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시원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좋다.

이외에 밖에서도 얼굴부터 몸, 머리까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뷰티제품도 최근 인기 상품이다. '이니스프리의 썸머 에코아이스 3종 세트'는 얼굴과 팔, 다리 등에 발라 체온을 낮춰주는 스파클링 에센스와 바디 쿨링젤, 두피 전용 에센스와 빗 모양의 마사지로 이용해 두피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아이스 헤드쿨러로 구성돼 있다.

탁상용 선풍기, 발 전용 선풍기, /옥션 제공

/정혜인기자 hjung@

상반기 소셜커머스 '셀프뷰티' 인기

혼자서도 전문가 못지 않게 관리할 수 있어

최근 자신이 직접 원하는 스타일을 만드는 '셀프뷰티족'이 점점 늘고 있다. 올 상반기 소셜커머스에서는 헤어부터 피부, 바디까지 집에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셀프뷰티'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에스테틱·헤어살롱 같은 전문샵에서만 가능했던 것들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돼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셜커머스를 통하면 기존 가격보다 70~8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처음 관련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팡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셀프뷰티 상품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345% 늘었고 판매금은 4배 가량 증가했다. 회사 측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가구 크림 타입의 모발팩 ▲젤 네일·네일 스티커 등 간편 네일 제품 ▲단백질클리닉·고데기·염색약 등 헤어제품 ▲몸에 붙이는 것만으로 몸매 관리를 도와주는 바디패치 등의 제품들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중 올해 새롭게 선보인 단백질 헤어케어 상품은 딜을 진행할 때마다 수만개 이상 팔리는 등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단백질 클리닉 CP-1'은 머릿결 손상방지와 영양공급에 효과적인 제품으로 주사기 용기로 제작돼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뷰티 상품 1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구팡의 상반기 전체 베스트 상품 10위 안에도 포함됐다.

티몬의 상반기 뷰티 카테고리는 지난해보다 약 50% 가까이 성장했는데, 이를 셀프뷰티 제품들이 견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름철을 맞이 몸매관리 등 피부 미용을 위한 상품들이 인기였다. 몸매 관리를 위한 셀버니 제품이 매출 상위에 2회 들었고 저자극 미백화장품인 BRTC의 '바이탈라이저 C10앰플' 등이 지속적으로 판매됐다.

위메프의 뷰티 카테고리에서도 셀프뷰티 제품이 강세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헤어 단백질 클리닉 제품인 '헤어플러스 단백질 본드앰플'이 뷰티 카테고리 1위에 올랐다. 고급 살롱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헤어 트리트먼트 '로픈 비오바 트리트먼트', 몸매 관리를 돕는 '마리리비에르 바디패치'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오혜민 기자 houne04@

"모유수유, 산모 건강 회복위해 꼭 필요"

모유수유가 아이 건강에 이롭다는 것은 익히 알려졌지만 엄마 건강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국내 모유수유율은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아직도 현저히 낮은 편에 속한다. 세계암연구기금(WCRF)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유수유가 유방암 발병 위험성을 약 5% 정도 낮춘다.

모유수유를 하면 아기가 젖을 빨 때 반사적으로 산모의 혈중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의 농도가 높아진다. 옥시토신의 농도가 높아지면 산후 출혈 감소 효과가 있고 자궁을 빠르게 수축시킨다. 아기가 젖을 빨면 젖분비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때 배란이 억제되므로 자연피임효과도 있다.

이와 함께 모유수유로 인해 칼로리 활용이 높아져 출산 후 산모의 체중감소에 도움이 된다. 특히 젖을 분비하는 양만큼 엄마 몸의 지방이 분해돼 산후회복도 빠르고 출산 전 체형으로 되돌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사진) 교수는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모유수유가 여성 가슴을 처지게 한다고 알려져 많은 산모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며 "아이 건강뿐만 아니라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모유수유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철 기자

여름 패션 키워드는 '스포티즘'

스포츠 샌들·미러 선글라스·스냅백 '핫 아이템' 부상

올초부터 패션업계에서 주목한 트렌드 키워드는 '스포티즘'이다. 아웃도어와 레저활동이 많은 여름 시즌을 맞이 활동성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며 스포츠 유니폼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스포츠 룩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스포츠 샌들·미러 선글라스·스냅백 등의 아이템은 이번 여름 패션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편하면서 강한 '스포츠 샌들'

올 여름 가장 '핫'한 아이템은 단연 스포츠 샌들이다.

그중 슈바이(대표 이향범)에서 독점 판매하는 '테바'의 인기가 눈에 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이 브랜드는 1984년 그랜드캐년 가이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아웃도어 브랜드다.

세계 최초로 '스포츠 샌들'이라는 카테고리를 선보여 돌풍을 일으켰다. 현재 물 보호단체인 '워터키퍼 얼라이언스(Waterkeeper Alliance)'와 파트너십을 갖고 물 환경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스포츠 샌들 부분 매출 1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에서도 다양한 라인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브랜드 관계자는 기대했다.

다양한 색상의 '테바 오리지널 유니버셜 샌들'은 탁월한 통기성과 편안한 착용감을 더한 게 특징이다. 스포츠 샌들답게 트래킹·하이킹·캠핑 등의 아웃도어 활동이나 여름 장마철 일상 생활에서도 편안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연예인이 먼저 찾는 '미러 선글라스'

선글라스는 자외선 차단은 물론 간편하게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러 선글라스의 인기는 단연코 돋보인다. 올 시즌 선글라스 트렌드인 간결한 디자인, 강렬한 색상을 접목시킨 미러 렌즈는 패션 피플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다.

하우스 브랜드의 선전이 눈에 띈다. 젠틀몬스터(GENTLE MONSTER)는 여성복 브랜드 '세컨플로어(2econd floor)'와 함께한 콜라보레이션 컬렉션을 지난달 선보였다. 이번 협업은 '락 페스티벌(ROCK FESTIVAL)'을 콘셉트로 70~80년대의 여성 락스타에서 영감을 받았다.

경쾌한 매력과 여성스러움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 오버사이즈 미러 렌즈를 사용해며 과감함을 더한 패티(Patti)와 데보라(Deborah) 2가지 스타일로 출시됐다.

아이웨어 브랜드 '라피스 센시블레'의 제품은 온스타일 '겟잇뷰티'에서 '남친을 사로잡는 선글라스 베스트 3'에 소개되는 등 뛰어난 품질과 디자인으로 연예인들이 자주 찾는 선글라스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여기도 저기도 '스냅백'

요즘은 어딜 가도 '스냅백'을 찾아 볼 수 있다. 실제로 옥션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스냅백 판매가 전년 동기보다 160%나 신장했다. 특히 10~20대의 구매 비중이 전체 39%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연령층에서 인기가 높았다.

스냅백은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스냅이 달려있는 모자로, 앞 챙이 짧고 평평한 것이 특징이다. 심플한 느낌을 선호한다면 타이포그래피로 포인트를 준 스냅백을, 개성을 살리고 싶다면 패턴이 있는 걸을 추천한다.

엠케이트렌드에서 전개하는 'TBJ' 스냅백은 독특한 프린팅에 고급스러운 자수가 눈에 띄는 제품이다. 이와 함께 'NBA'가 송지오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출시한 '폴더 팝(Folder Pop)'은 세련된 디자인 때문에 젊은 고객 사이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다. /김학철 기자 kimsp1104@metroseoul.co.kr

강강술래 "불황 탓 포장 매출 35% 껑충"

휴가비 아끼려는 알뜰형 증가 영향

휴가지에 먹을거리를 싸가는 알뜰형 피서족이 늘면서 포장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국내서 휴가를 즐기거나 아예 집에서 보내는 이들의 주문이 늘면서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의 바캉스 포장세트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35%나 뛰어올랐다.

강강술래는 이달 10일까지 전 매장과 쇼핑몰(www.sullai.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매장 인기메뉴로 구성된 바캉스 포장세트를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럭키세트(한우불고기1kg+돼지양념1kg)와 사랑세트(한우불고기1kg+L.A갈비900g)는 4만원, 어메이징세트(왕양념갈비560g+솔래양념520g+한우불고기1kg)는 8만9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3000원의 택배비를 추가하면 휴가지까지 배송해준다(도서산간 별도 문의).

같은 기간 전 매장에서는 갈비맛쇠고기육포(6봉·2만1600원)와 찜질한우떡갈비(360g·1만2000원),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7200원), 모짜렐라돈기스(720g·1만800원)도 정상가보다 4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이와 함께 뉴하이트 맥주를 한 병 시키면 한 병을 더 주는 '맥주 1+1 행사'도 함께 벌인다.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sullai.com) 고객마당에 신청글을 올리면 총 50명(1인 2매)에게 서울에서 90분 거리에 위치한 최고급 리조트스파인 리솜스파캐슬 천천향 이용권을 증정한다. 천천향은 49℃의 100% 천연 게르마늄 온천수를 매일 공급해 건강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아토피 피부를 가진 아이들은 물론 신경통·관절염·성인병 등에도 효과가 있다. /정혜인 기자

metro entertainment E

'너포위' 스타일리쉬한 신입 경찰

안재현

"아직 세발자전거 타고 있어요"

두 번째 연기 리액션 들어 전력하길 잘했어요
키스신에 필요한 건 박력

안재현(27)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천송이(전지현)의 동생역을 맡았던 배우다. 혜성처럼 등장한 것 같은 그는 소녀 팬에겐 '남친짤'(훈훈한 남자친구로 오해하기 좋은 사진)로 먼저 유명했다. 모델 출신다운 큰 키와 날씬한 몸매, 하얀 피부에 찢어진 눈매는 신비감과 함께 모델출신 냄새를 풍긴다. 지난달 17일 종영된 '너희들은 포위됐다'(이하 '너포위')에선 신입 경찰 P4(이승기·고아라·안재현·박정민)의 대표 패셔니스타 박태일 역을 맡아 한층 더 성장했는 평이다.

◆두 번째 드라마다. 연기가 익숙해졌나?

아직 아니다. 부담이 크고 대본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별에서 온 그대'보다 나아진 건 리액션이다. 예전엔 내 대사에만 집중했는데 이젠 상대 배우와 함께 호흡할 수 있게 됐다.

◆박태일이 지난 삼자기 후반에 드러났다. 미스터리한 캐릭터지고는 분량이 적었다.

분량은 오히려 많았다. P4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다. 멋있는 이승기와 차승원, 에너지 넘치는 고아라, 재미 있는 박정민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했다. 의상 선택도 패션에 일가견이 있는 경찰이지만 현실적으로 보이도록 일부러 심플하게 입었다.

◆차승원이 '명품한테 좋다'고 함께 연기한 소감을 전했다.

선배앞에선 굳었는데 그 모습을 귀엽게 봐주셨나 보다. NG나면 스태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 '죄송합니다'보다는 '제가 죽일 놈입니다'라고 말하며 능청스럽게 행동한다. 그래서 엉뚱하다고 말한 게 아닐까 싶다.

◆오윤이(김사경 역)와의 사랑은 애매했다.

처음엔 오윤에와 키스신까지 있었는데 시놉시스가 계속 변하는 바람에 로맨스로 이어지진 못했다. 그런데 극 전개 상 이렇게 흐지부지된 게 더 나았다.

◆키스신을 위해 준비한 게 있었다면?

박력. 벽에 밀치는 장노나. 지가작 영화에선 키스신을 찍었다. 궁금하면 영화로 봐달라. (웃음)

◆박정민(지국 역)과의 남남케미가 화제였다.

지난주 금요일(7월31일)에도 만났다. 내가 비싼 고기를 샀다. 형님이 빠른 87이지만 친구하기로 했다. 촬영하는 매 순간 즐거웠다.

◆기억나는 장면은?

칼에 찔리는 장면. 처음 액션연기를 한 거였다. 상대방과 합이 맞지 않으면 맞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드라마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 멍들고 아픈 게 좋았다.

◆학창 시절엔 재미는 쪽이었나, 못는 쪽이었나.

놀지도 공부도 하지 않는 학생이었다. 중3 때 키가 175㎝였다. 생김새도 지금 같아서 싸움을 거는 친구가 없었다.

◆엠넷 음악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 MC다.

실큼 발랄한 진행보다는 시크한 진행을 원한다. 나의 이미지에 맞아서 캐스팅된 것 같다. 생방송이다 보니 어렵다. 가수 이름부터 무대 구성까지 신경 써야 할 게 많다.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정준영과도 서로 도우며 호흡을 맞추고 있다.

◆인상적이었던 가수는?

블락비. 이번 신곡 '헐'이 좋았다. (정준영도 가수인데?) 아! 준영이를 깜빡 했다. 무대 위에서 쇼맨십도 상당하고 정말 멋있다.

◆모델이 된 계기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한 적이 있다. 스물 두 살이었는데 막연하게 직업을 생각하다가 모델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전에도 '연예인 해라'는 말을 조금 듣긴 했다. (웃음) 모델 오디션에서 못생겼다고 떨어졌다. 성형하자는 말도 들었다. 당시 쌍꺼풀이 짙은 으리으리한 스타일이 대세였다. 그때 성형하지 않은 게 다행인 거 같다.

◆군대를 다녀왔다.

23세에 입대했다. 일찍 잘 일어 없었다. (웃음) 지금 돌아보면 잘 된 일이고 기쁘다.

◆ 안재현 머리빨' 이 연관 검색어다.

인정한다. 머리 모양이라도 예뻐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머리빨'이 처음에는 안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 어떤 팬이 '안재현은 머리 모양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낸다'며 글과 사진을 게재했는데 그게 와전된 거다.

◆신비로운 매력이 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신비롭게 느껴지면 좋다. 까 볼 것도 있을 거고 호기심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닌가. 나름 MBC '아이돌 육상 체육 대회' 같은 예능에도 나갔었다. 기회가 된다면 예능 출연도 기대된다. 유재석 노홍철 하하를 좋아한다.

◆이제 시작이다. 몇 모였어 있나.

미디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끼가 부럽다. 그 분들에 비해 나는 아직 세발자전거 타는 수준이다.

/정효진기자 wnk@metroseoul.co.kr
사진/김민주(라운드테이블) 디자인/최승미

K팝 우먼파워 침체 日 한류 살린다

'신 라이벌' 에이핑크 – AOA 데뷔 · '베테랑' 카라 – 보아 새 앨범

국내 걸그룹들이 일본 음악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조 한류 보아와 카라가 일본 활동을 예고한 가운데 음악과 연기, 예능 등 국내 방송가에서 활약하고 있는 걸그룹 에이핑크와 AOA도 일본 가요계 데뷔를 앞두고 있다. 국내를 넘어 일본에서 펼쳐지는 선후배 대결은 최근 침체된 한류를 다시 불러일으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AOA·에이핑크 10월 데뷔

'노노노'·'미스터츄'로 자체 최다 인기 걸그룹 자리에 오른 에이핑크와 올해 '단발머리'와 '짧은 치마'를 연달아 히트시킨 AOA가 일본 공식 데뷔를 앞두고 있다. 반응은 벌써부터 뜨겁다.

지난 4월 일본 도쿄 시나가와 스텔라볼에서 열린 에이핑크 데뷔 쇼케이스는 일본 주요 언론매체에 대서특필됐다.

10월 22일 출시될 데뷔 싱글 '노노노'는 발매 전부터 최대 음반 체인점인 타워레코드의 종합 데일리 예약차트 1위에 깜짝 랭크됐다.

소속사 에이큐브엔터테인먼트는 "일본 유력 매체인 산케이스포츠를 비롯해 닛칸스포츠, 주니치신문 등이 에이핑크의 데뷔 쇼케이스를 비중있게 다루며 현지 활동에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를 입증하듯 데뷔 싱글은 선 주문 차트 1위를 석권했다. '에이핑크'란 키워드는 타워레코드 연가 검색어로 등재돼 있다"고 전했다.

AOA에 대한 관심도 대단가지다. AOA는 소녀시대와 카라 등 대형 가수들의 일본 활동을 맡았던 유니버설 뮤직과 손잡고 10월 1일 신곡 '미니 스커트'를 발표한다.

AOA는 지난해 일본에서 개최된 쇼케이스와 지난 3월 열렸던 FNC 엔터테인먼트 패밀리 콘서트 'FNC 킹덤' 무대를 통해 이미 많은 팬을 확보했다. 17일 개최되는 2014 에이네이션-아시아 '프로그레스 디파처' 무대에는 국내 걸그룹 대표로 출전한다.

AOA는 '단발머리'로 일본 타워레코드 퀸스차트 3위에 오르는가 하면 전 세계 주요 SNS 플랫폼의 데이터를 수집해 집계된 가온차트의 소셜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 보아·카라 관심 부활하나

카라(한승연·박규리·구하라·허영지)는 오는 18일 여섯 번째 미니앨범 '데이 & 나이트'를 한국과 일본에 동시 발매한다. 이번 앨범은 니콜과 강지영이 탈퇴하고 새 멤버 허영지가 영입돼 처음 선보이는 앨범이라는 점에서 일본 팬들의 기대가 높다.

타이틀곡 '맘마미아'는 유명 작곡가 이단옆차기가 만든 곡으로 멤버들의 색깔을 잘 살린 파워풀한 댄스곡이다. 일본에서 대표적인 한류 걸그룹으로 활동 중인 카라는 국내 활동과 함께 일본까지 공략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K팝 1세대로 꼽히는 보아는 다음달 일본에서 여덟 번째 정규앨범 '후즈 백?'을 발표하고 라이브 투어에 나선다. 6~7월 도쿄를 시작으로 미야기·오사카·후쿠오카 등지를 순회하며 공연한다.

보아가 지난 2010년 2월 7집 '아이덴티티' 이후 4년 7개월여 만에 일본에서 공개하는 정규 앨범이라는 점에서 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아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2008년 미국 진출을 계기로 일본 활동은 주춤했다. 이후 국내 활동에 집중했다. 한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 쉴 새 없이 활동한 14년차 베테랑 가수 보아가 또다시 열도를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성은기자 yoo@metroseoul.co.kr

오렌지카라멜 또 파격 변신

새앨범 카툰 메이크업 공개

그룹 애프터스쿨의 유닛 오렌지카라멜(사진)이 또 한 번 파격 변신을 예고했다.

6일 오렌지카라멜은 신곡 '나처럼 해봐요'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찍은 멤버들의 사진을 공개했다. '까탈레나', '아잉♡' 등 매 앨범마다 재미있고 독특한 콘셉트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오렌지카라멜은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카툰 메이크업을 선보였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오렌지카라멜 멤버들은 각각 노랑, 분홍, 하늘색 파스텔 톤 배경 앞에서 눈 그림을 얼굴에 붙이고 재미있는 표정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특히 만화에서 곧 튀어나온 눈을 묘사한 메이크업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오렌지카라멜은 오는 18일 네 번째 싱글 '나처럼 해봐요'를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성은기자

태티서 '가을의 여왕'으로 귀환

두 번째 앨범 발매 '트윙클' 인기 넘을까

소녀시대의 유닛인 태티서(태연·티파니·서현·사진)가 올 가을 새 앨범으로 돌아온다.

태티서는 9~10월께 새 앨범 발표를 목표로 현재 음반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앨범의 타이틀곡은 경쾌한 느낌의 댄스곡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태티서는 2012년 4월 유닛으로 첫 앨범인 '트윙클'을 발표해 소녀시대에 버금가는 큰 인기를 얻었다. 태티서의 세 멤버는 소녀시대로 2월 네 번째 미니앨범 '미스터 미스터'를 발표하고 활동했다.

한편 소녀시대는 데뷔 7주년을 기념해 25일 멤버들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보낸 여름휴가 모습을 담은 포토북 '걸스 제너레이션 인 라스베이거스'를 발매한다.

라스베이거스의 사막, 야경 등을 배경으로 찍자바 파티, 쇼핑, 물놀이 등 다양한 설정을 한 사진들이 담겼다. 290쪽 분량의 화보집과 촬영 스케치 영상 DVD, 포스터 등으로 구성됐다. 포토북은 현재 각종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예약 판매 중이다.

/유순호기자 suno@

선정성 논란 씻고 '웰메이드 드라마'로

'괜찮아…' 공효진·조인성 "개방적 소통 필요" 소신 밝혀

6일 서교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괜찮아 사랑이야' 기자간담회에서 공효진, 조인성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근 선정성 논란에 휘싸였던 SBS 수목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가 웰메이드 드라마로 한 걸음 다가선다.

6일 서교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괜찮아 사랑이야' 기자간담회에서 주연 배우 공효진과 조인성은 드라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공효진은 선정성 논란에 대해 "선정적이라는 말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부모님과 또는 아이들과 같이 보기 민망하다고들 하시는데 이제 개방적인 소통을 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性)에 대해 '넌 어리니까 몰라도 돼'하는 분위기 때문인지 섹스라는 단어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여겨진다. 쓰면 안 되는 단어처럼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SEX'라는 단어로 낙서하는 것"이라며 "미국 드라마는 괜찮고 한국 드라마는 왜 안 되는 건지 모르겠다. '괜찮아 사랑이야'는 모든 면에서 자유롭고 솔직하게 얘기하고자 한다. 노골적인 단어를 재미로 삼는 작품이 절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드라마가 과감한 출발을 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인성은 "가족과 보기 민망하시면 혼자 보셔도 된다"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쪽대본이 난무하고 생방송에 가까운 촬영 일정이 빈번한 한국 드라마의 제작환경 속에서 '괜찮아 사랑이야'는 이미 대본 탈고가 모두 완료된 상태다.

조인성은 "이미 대본 탈고도 끝났고 촬영도 11~12부가 진행 중"이라며 "극중 캐릭터 역시 노희경 작가가 우리의 모습을 고려해 써서 실제 모습이 많이 투영돼 있다. 대본 리딩도 벌써 10회 이상 진행했다. 배우들과 연출진이 하나 하나 소통하면서 치밀하게 계산하면서 촬영하고 있다"고 작품 완성도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어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와 함께 현대인이 겪는 소외감이나 외로움, 정신적인 방황 등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괜찮아 사랑이야'는 완벽한 외모의 인기 추리소설작가 장재열(조인성)이 겉으론 무뚝뚝하지만 내면은 누구보다 연약한 정신과 의사 지해수(공효진)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펼쳐지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김지민기자 languam@metroseoul.co.kr

이민호 中 팬 구호품 전달

국경 뛰어넘는 선행으로 화제

배우 이민호(사진)의 팬클럽이 중국을 감동시켰다.

6일 이민호의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 5일 이민호의 중국 팬들이 윈난 성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현장에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국경을 뛰어넘는 "우정의 교량" 역할을 했다.

이민호의 중국 팬클럽인 미노즈 차이나의 쌍취 회원들은 라면 300상자(3600개)와 생수 600박스(1만4400병)를 사고 현장에 기부했다. 이는 재난 현장을 고려한 1차적인 움직임으로 타오바오의 모금 시스템을 통해 2차 기금을 준비하고 있다.

팬들의 소식을 들은 이민호는 지난 5일 자신의 웨이보에 "나의 팬들이 선량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난을 입은 분들을 도운 일에 매우 감사를 드리고 감동을 받았다. 나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민호는 지난 4월 '사랑을 모아 더 큰 사랑을 나눈다'는 취지의 기부 플랫폼인 프로미즈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프로미즈에서는 매년 새로운 기부 테마를 선정해 나눔 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은 물론 노크 캠페인을 통해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고 있다.

/정해욱기자

YSW

MBC 월화드라마 '야경꾼일지'

tvN 목요드라마 '잉어공주'

KBS2 금요드라마 '하이스쿨 러브온'

판타지 편견 넘어선 드라마

'야경꾼일지' '잉어공주' '하이스쿨…' 이색 소재 눈길

최근 '귀신·인어공주·천사' 등의 판타지 장르에서 주로 쓰이는 소재를 다룬 드라마들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MBC 월화드라마 '야경꾼일지'는 조선시대 가상의 왕조를 배경으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통행금지 시간에 순찰을 돌며 귀신을 잡던 방범 순찰대 야경꾼의 이야기를 담았다. 주인공 이린(정일우 분)은 세력 다툼에 밀려 궁궐에서 쫓겨나 '불량왕자'로 자랐지만 귀신 보는 능력으로 야경꾼이 돼 귀신을 퇴치하고 백성을 돌보며 진정한 왕자로 거듭난다.

지난 4일 방송된 '야경꾼일지' 1회는 극 초반부터 화려한 CG와 긴박한 연출, 빠른 전개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11.8%, TNmS 집계·전국 기준·이하 동일)를 기록했다. 2회 역시 극중 제동 역의 최원영의 열연과 이어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가 호평을 받으며 11.9%를 기록,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7일 오후 11시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tvN 새 목요드라마 '잉어공주'는 인간이 되고 싶은 인어공주가 2014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아남는 과정을 그릴 예정이다.

주인공 인어공주 김하니(조보아 분)는 동화 속 인어공주와 똑같이 진정한 사랑을 찾아야만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3포 세대(연애, 취업, 결혼 또는 출산을 포기하는 2030세대)'로 정의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사랑은 사치처럼 여겨져 김하니의 사랑찾기는 난항을 겪는다. 주변 인물들 역시 장수 취업 준비생, 신입사원, 기러기 아빠 등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들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극 속에 녹여낼 예정이다.

연출을 맡은 백승룡 PD는 지난달 30일 제작발표회에서 "요즘은 취업을 못해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는 말도 있다. 세상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는 인어공주의 모습을 보고 이 시대 '잉여'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잉어공주'가 꿈을 잃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위로와 공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KBS2 금요드라마 '하이스쿨 러브온'은 위기에 빠진 남학생을 구하려다 인간이 되어버린 천사 이슬비(김새론 분)와 친구의 사랑과 성장을 담은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다.

장르는 판타지 로맨스지만 청소년 문제를 담는다는 점은 KBS '학교' 시리즈와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드라마는 천사가 인간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학교를 다닌다는 판타지적 설정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학교 폭력과 왕따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학교 폭력 연출에 도가 지나치다, 자극적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시청자들은 "현실에선 더 끔찍한 학교 폭력이 일어나기도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지민기자

웃음으로 승부 액션 어드벤처

스토리 아쉬움 채우는 캐릭터 중심 코미디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 해적: 바다로 간 산적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하 '해적', 감독 이석훈)은 올 여름 상영하는 한국영화 대작들 중 유일한 코미디 영화다. 각본은 드라마 '추노'와 영화 '7급 공무원'으로 재치 넘치는 스토리텔링을 선보였던 천성일 작가가 썼다. '댄싱퀸'으로 전국 400만 관객을 동원한 이석훈 감독이 스크린으로 옮겼다. 김남길, 손예진, 유해진, 이경영, 오달수, 김태우, 박철민, 신정근, 김원해, 조달환, 조희봉, 정성화, 설리 이이경 등 내로라하는 호화 캐스팅을 자랑한다.

영화는 조선의 건국을 앞두고 국새가 사라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명나라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국새를 고래가 삼켜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자 태조 이성계는 고래를 잡아 국새를 찾아올 것을 명한다. 국새와 함께 엄청난 금은보화까지 삼킨 고래를 잡기 위해 해적과 산적, 그리고 개국 세력이 얽혀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화려한 볼거리와 유쾌한 웃음과 함께 펼쳐진다.

'바다로 간 산적'이라는 부제처럼 영화의 가장 큰 웃음은 산적들이 담당한다. 바다라고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산적들이 고래를 사냥하러 가면서 겪는 갈등과 해프닝이 크고 작은 웃음을 만들어낸다.

그중에서도 해적에서 산적으로 귀향한 철봉 역의 유해진이 보여주는 상황극과 슬랩스틱을 오가는 자연스러운 코믹 연기가 일품이다. '해적'의 웃음을 담당하는 일등공신이다. 산적단 두목 장사정 역으로 기존의 무거운 이미지를 벗고 엉뚱한 매력을 선보이는 김남길의 변신도 눈에 띈다.

다만 인물들 사이의 갈등 구조나 이야기의 플롯 구성은 정교하지 못하다. 국새를 찾는다는 기본 스토리보다 캐릭터 중심의 코미디에 방점을 둔 탓에 영화는 후반부로 갈수록 긴장감도 떨어진다.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를 통해 민족 정서를 언급하는 결말도 사족 같다.

'군도: 민란의 시대'가 과거를 통한 장르적 유희를, '명량'이 과거의 리얼리티의 재현을 그렸다면 '해적'은 과거를 판타지의 공간으로 만드는데 초점을 맞춘다. 가족 관객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오락영화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앞선 두 영화에 비해 영화적 완성도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오락영화로서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 12세 이상 관람가. 6일 개봉.

김혜수·김고은 '코인로커걸'

범죄조직 보스·조직원으로 강렬 변신

영화 '코인로커걸'(감독 한준희)이 배우 김혜수(왼쪽 사진) 김고은(오른쪽)의 캐스팅을 확정하고 지난 5일 크랭크인했다.

'코인로커걸'은 '태어나자마자 지하철 보관함에 버려졌던 일영이 차이나타운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엄마'로 불리는 보스에 의해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성장하며 만나게 되는 세상을 그린 영화다.

충무로 대표 여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이어온 김혜수는 거칠고 살벌한 차이나타운에서 독하게 군림하고 자각개 일가를 지키는 보스 '엄마' 역을 맡았다. 한국영화 사상 전무후무했던 여성 보스 캐릭터로 새로운 연기 변신을 보여줄 계획이다.

'은교' '몬스터' 등으로 충무로의 새로운 기대주로 떠오른 김고은은 코인로커에 버려진 소녀 일영 역을 맡아다. 생존본능으로 무장된 인물로 보스 '엄마'가 시키는 일은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히 해내는 인물이다. 김고은은 또 한 번 폭넓은 스펙트럼의 연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연진도 탄탄하다. '명량'에서 수봉 역으로 존재감을 남긴 박보검이 일영이 쫓는 채무자의 아들 석현을 연기한다. 지난해 '잉투기'로 주목 받은 엄태구는 일영과 엄마 밑에서 함께 자란 우곤 역을 맡았다. 고경표는 '엄마'를 능가하는 보스를 꿈꾸는 치도 역으로 이미지 변신을 꾀한다. '코인로커걸'은 3개월 동안 촬영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중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배성우 이번엔 이병헌 심복

'내부자들'서 감초 조연 연기 주목

영화 '몬스터' '인간중독' '신의 한 수' 등을 통해 감초 연기를 선보인 배우 배성우(사진)가 '내부자들'(감독 우민호)에 캐스팅됐다.

'내부자들'에서 배성우는 극중 은밀세시의 대표인 박종팔 사장 역을 맡았다. 이병헌이 연기하는 조폭 안상구의 심복으로 '맛깔 나는 마초'의 매력을 섬세한 표현력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내부자들'은 사회 깊숙한 곳까지 뿌리박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내부자들을 통해 날카롭게 파부하는 작품이다.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이 캐스팅돼 화제가 됐다. '미생' '이끼' 등으로 잘 알려진 윤태호 작가의 동명 웹툰이 원작이다. 지난달 13일 크랭크인됐으며 내년 상반기 개봉 예정이다.

한편 배성우는 올 하반기에도 '빅매치' '나의 독재자'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등에 출연해 감초 조연의 존재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병호기자

CGV '시네마클래스' 2기 수강생 모집

박찬욱 감독 등 강사 참여

CJ CGV(대표이사 서정)는 미래의 영화인을 위한 'CGV 시네마클래스' 2기 수강생을 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CGV 시네마클래스'는 영화인을 꿈꾸는 이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강좌다.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 준비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다음달 2일부터 12주 동안 '콘텐츠' '산업' '감상' 섹션으로 나뉘어 강의를 진행한다.

강사진으로는 박찬욱 감독, 제작사 씨네2000 이춘연 대표, 부산국제영화제 전양준 부집행위원장, 이승재 칼럼니스트, 이동진 평론가가 함께 한다.

강연과 함께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참석자들은 10명씩 조를 이뤄 자유 주제로 관련 업무도 수행한다. 마지막 주에는 조별 과제 발표를 통해 우수 조를 선정, 소정의 상품과 그룹 공채 CGV 지원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정 대표이사는 "'시네마클래스'는 미래의 영화인들과 현역 영화인들이 서로 열정을 나누는 자리"라며 "CGV만의 영화 지식 나눔인 시네마클래스를 통해 청춘의 꿈을 지속적으로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장병호기자

한국인은 왜 보신탕을 먹을까?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고대 동양에는 보신탕 문화가 보편적이었지만 지금은 유독 한국과 베트남에만 남아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역사적 배경도 있다. 보신탕의 뿌리는 중국이다.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기원전 676년, 복날 개를 잡아 제사를 지냈다고 했으니 복날 보신탕의 기원이다. 뿐만 아니라 개는 중국에서 제왕의 음식이었고 하늘에 바치는 제물이었다. 주례(周禮)에는 개가 말, 소, 양, 돼지, 닭과 함께 제왕이 먹는 여섯 가지 고기에 포함돼 있다. 유교에서는 개로 복날에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6세기 남북조시대부터 중국 문헌에서 개식용의 기록이 사라진다. 농경민족인 한족이 북방의 유목민에게 쫓겨 남쪽으로 밀려났을 때다.

유목민에게는 개식용의 풍속이 없다. 유목민에게는 개가 가축을 지키는데 절대 필요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국에서 보신탕이 사라진 이유로 1000년이 넘는 유목민족의 지배를 꼽기도 한다.

6~7세기 중국의 북쪽인 유목민인 선비족이 점령했다. 이어 당나라를 제외한 10세기 이후는 거란족의 요나라, 여진족인 금나라가 다스렸다. 다음이 몽고의 원나라고 명나라를 거쳐 여진족인 청나라의 통치가 이어졌다. 그러니 지배민족인 유목민족의 영향을 받아 보신탕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보신탕이 사라진 시기도 비슷하다. 서기 675년, 텐무(天武)일왕이 소, 말, 개, 닭, 원숭이는 먹지 말라며 육식 금지령을 선포했다. 바꿔 말하면 이전까지 개는 물론 원숭이도 먹었다. 일본인이 고기를 다시 먹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명치유신 이후다. 1200년 만에 다시 고기를 먹는데 굳이 개고기를 먹을 이유가 없었다.

반면 우리는 보신탕을 배척하지 않는 농경사회였고, 전통 유교사회였다. 게다가 고려 때 몽고의 영향 이외에는 유목민족의 음식문화를 강요당했던 적도 없다. 베트남 역시 우리와 역사적 배경이 비슷하다.

지금처럼 개가 반려견도 아니었기에 보신탕 문화가 사라질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음식문화평론가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7		
	4		5		3	1		
						5	8	6
5	7		3				9	
4				7				5
	3				6		4	7
3	2	4						
		8	7		1		6	
		7		3				

	3			6				7
	7	6			1			
1		5		3				
		1	6				7	
3			2		9			5
	5				3	6		
				9		4		2
			7			3	9	
6				5			1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연사 스도쿠 라이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30살 직장녀 결혼 운 궁금합니다
자기 계발 회사 생활 정진하세요

Q 행복이 여자 85년 7월2일 음력 오전 9시30분

메트로 신문을 매일 보기만 하다가 요새 마음도 답답하고 해서 글을 올려보네요. 지금 현재 돈도 모은 것도 없고 나이만 먹고 되는 일도 없는 것 같아서 고민도 많고 미래가 답답하네요. 제가 직장은 현재 다니고 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고 계속 다녀야 되는지 고민되고 앞으로 할 하면 좋을지 직업 운과 돈은 언제쯤 생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85년 음력 7월 2일로 나이가 있어서 애정 운이나 결혼운도 궁금하네요.

A 2014년 운(運)에 문서 운이 쇠지(衰地)에 있으므로 직장을 옮기지 말아야 하며 면목을 부리다가 백수신세를 면하기 어려우니 백수로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세요. 돈은 명심보감에서 대부재천(大富在天)이요, 소부재근(小富在勤)이라고 했는데 큰돈을 버는 것은 노력보다는 천운이 있어야 된다고 하였으며 작은 부자는 노력하면 재물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주팔자가 식신생재(食神生財) 내가 생하주는 오행이 재물을 생하니 사람이 큰돈을 만질 수 있으며 귀하의 같이 재물이 바닥이 깔려 있으니 천간으로 투간(透干)되지 못할 때는 운에서 재운 회(會)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노력을 경주하면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37세부터 재물 운이 들어오는데 자기 계발을 부지런히 하세요. 비견살(比肩殺)로 매사에 진중을 하면서도 실증을 잘 내므로 지속성이 없고 변덕을 부리는 편이니 유두사미가 되어 시작은 잘하지만 끝이 없어 용두사미가 변덕 됩니다. 그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자신의 몫일 것입니다. 월궁미인에 현모양처감이지만 부덕이 약하여 배우자를 택할 때 의지력이 강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며 적당히 택하다가는 남편이 우는 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즉 월주(月柱)의 간신(幹神)남자를 만나게 되면 좋게 말하면 자아가 강한 남자를 만나지만 아집과 고집이 강한 사람을 만나 불편하고 괴로워하기까지 할 것이니 먼저 직장에 충실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수(子水)날에 태어나 밤늦게까지 활동을 하여 야식을 즐기는 취향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건강이 우선 돼야 하므로 위장질환과 요통을 조심하고 추가 궁금하신 것은 내사상담신청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7일 (음 7월 12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독단의식은 눈물 부른다. 60년생 옛 친구가 찾아와 즐겁구나. 72년생 성과가 좋아 칭찬이 쏟아진다. 84년생 인생은 소설 같으니 일짝 닫지 말라.

소 49년생 혈자리 약속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61년생 우유부단은 자신이 어렵다. 73년생 직장인은 특히 관리감독 신경 써라. 85년생 그동안 쌓은 내공 빛을 본다.

호랑이 50년생 정석같이 길었던 사람이 배신한다. 62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이 생겨 어호~ 74년생 현실에 충실해야 손해 없다. 86년생 연인과 부모 사이서 진퇴양난~

토끼 51년생 잘 모르는 일은 도전 말라. 63년생 뜻을 이루려면 물쓰시개가 필요하다. 75년생 바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 87년생 중요한 임무가 주어져 어깨 무겁다.

용 52년생 자연 열혼의 안식처가 생긴다. 64년생 사람 속의 시기 되지 않도록 할 것. 76년생 나관했던 일에 돌발변수가 생긴다. 88년생 프러포즈 받으면 직당은 말라.

뱀 53년생 한 곳 차이로 희비 엇갈릴 수도. 65년생 늘 하던 대로 하면 눈물 흘린다. 77년생 돈 문제는 지혜롭게 대처할 것. 89년생 공은 바라는 쪽으로 오지 않는다.

말 42년생 마음에 웃음꽃이 핀다. 54년생 하는 시늉만 하는 배우자가 얄밉구나. 66년생 실력가 보탁이 되는 날이다. 78년생 친구의 어려움에 작은 것도 거들어라.

양 43년생 진정 원하는 것 쉬사람 듯. 55년생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67년생 막막한 문제일수록 자유롭게 생각할 것. 79년생 고난은 있으나 다양한 길은 있다.

원숭이 44년생 심심할 정도로 편안하다. 56년생 꽁수는 묵뻑겁을 면심할 것. 68년생 어려워도 원칙 지키면 최후엔 웃는다. 80년생 기회가 왔으니 머뭇거리지 말라.

닭 45년생 여럿사람에 복을 걸 배우라. 57년생 꼬인 문제는 대화로 푸는 게 최고니. 69년생 동료와 술잔 말은 만들지 말라. 81년생 말은 일이 잘 풀려서 힘이 솟는다.

개 46년생 권건을 쳐면 사람이 보인다. 58년생 문서나 투자 일은 미루어라. 70년생 믿고 지냈던 반가운 사람 만난다. 82년생 여러 이성이 러브콜해서 두근두근 하루~

돼지 47년생 계획에 자잘이 생길 듯. 59년생 원칙을 안 따르면 대가를 치른다. 71년생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을 바꾸도록 노력할 것. 83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듣는다.

축구감독 판 마르바이크 유력

제2의 히딩크 기대 협상 돌입… 최근 부진 자질 우려도

대한축구협회가 한국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네덜란드의 베르트 판 마르바이크(62·사진) 감독을 유력 후보로 결정하고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네덜란드 축구 전문 매체들은 "거스 히딩크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영입한 한국이 판 마르베이크와 협상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들 매체들은 "판 마르베이크 외에 마틴 욜, 닐 레넌, 프랑크 레이카르트 감독 등이 한국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거론됐지만 아들 중 한국 측과 대화를 시작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판 마르베이크 감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네덜란드 대표팀을 맡아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네덜란드 페예노르트, 독일 도르트문트와 함부르크 등에 클럽 감독으로도 활동했다.

판 마르베이크 감독은 협회 기술위원회가 제시한 월드컵 예선 경험, 영어 구사, 즉시 계약 가능, 월드컵 본선 16강 이상 진출 경력 등의 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지도자로 평가되고 있다.

네덜란드 언론의 보도처럼 판 마르베이크 감독 외에 2~3명의 협상 대상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후보가 한 명으로 압축될 경우 협상에서 계약 금액이 커질 우려 때문에 가능성이 떨어지는 후보를 함께 내세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협상을 위해 5일 출국했다. 협상이 차질을 빚지 않으면 판 마르베이크 감독과 계약에 합의하고 귀국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판 마르베이크가 유력한 차기 감독으로 거론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판 마르베이크 감독은 남아공월드컵에서 네덜란드를 32년 만에 결승으로 이끌어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네덜란드가 2012년 유럽선수권대회 조별예선에서 3전 전패로 탈락한 뒤였다. 그는 2016년 유럽선수권대회까지 이어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클럽 감독으로서도 페예노르트에 2001~2002시즌 유럽축구연맹(UEFA)컵 우승을 안겼고, 2007~2008시즌 다시 페예노르트 감독으로 부임해 네덜란드축구협회컵 우승을 차지했다.

네덜란드 감독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클럽 사령탑으로도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 2013년 독일 함부르크를 맡아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이다가 올해 1~2월에 무려 5경기 연속으로 3골 이상씩을 얻어맞고 패배했다. 사상 첫 강등의 위기에 몰린 함부르크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판 마르베이크 감독을 경질했다.

함부르크는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끌려갔다가 겨우 이겨 1963년 분데스리가 출범 후 첫 강등을 면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병장' 김원중 숙소 무단이탈

마사지 받고 복귀 후 교통사고 은폐

국군체육부대에 복무중인 김연아 선수의 남자친구 김원중(30·사진)병장이 아이스하키 대표팀 선수 자격에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김원중 병장이 합숙 훈련지를 무단 이탈해 태국전통마사지를 받고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가에 김원중 병장은 무단 이탈후 복귀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이 사실을 숨겨 은폐 논란도 일고 있다.

김 병장은 최근 국가대표로 선발돼 지난 6월 16일부터 일산에서 태릉선수촌과 목동 아이스링크 등을 오가며 합숙 훈련을 해왔다.

그러나 6월 27일 오후 9시쯤 대표팀 코치에게 "담배를 사오겠다"고 한 뒤 동료 선수 이 모 병장의 개인 차량을 타고 숙소에서 약 3km 떨어진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았다. 2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은 김 병장은 숙소로 복귀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해 8일 이상 치료를 받아왔다.

당시 이 병장이 몰던 차량은 음주 운전차량이 들이받아 김 병장은 오른 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고, 이 씨 등 2명은 타박상을 입었다. 하지만 김 병장과 대표팀 코치 등은 이 사실을 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김 병장의 무단이탈과 교통사고 소식을 제보받은 군 당국은 6일 김 병장 일병과 대표팀 코치가 국군체육부대 내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김 병장은 오는 9월 전역 예정이었다.

/양성운기자 ysw@

다저스, 에인절스에 진땀승

7이닝 3실점 커쇼 11연승은 실패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지구 최강의 투수 클레이튼 커쇼(26)마저 난타한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에 진땀승을 거뒀다.

다저스는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에인절스와 인터리그 홈 2차전에서 9회말 끝내기 야수선택에 힘입어 5-4로 승리했다. 2연패에서 벗어난 다저스는 이날 밀워키 브루어스에 3-4로 패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2.5경기 차로 밀어내며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를 지켰다.

전날 선발 투수 잭 그레인키를 내세우고도 0-5 완패를 당한 다저스는 이날 에이스 커쇼마저 에인절스 타선에 무너질 위기를 맞았다. 커쇼는 3회까지 7피안타 3실점으로 흔들렸다. 6월 이후 11경기에서 10승, 평균자책점 0.94를 기록한 커쇼에게 좀처럼 보기 드문 경기였다.

그러나 이후 4이닝을 볼넷 2개, 노히트로 막으며 에이스의 역할을 다했다. 다저스는 3-3으로 맞선 6회말 1루 주자 맷 켐프가 2루 도루 후 포수 악송구를 틈타 3루까지 진루했다가 스콧 반 슬라이크의 희생플라이 때 홈을 밟아 역전에 성공했다.

9회말 끝내기 야수선택을 친 다저스의 안드레 이디어가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AP 뉴시스

커쇼는 4-3으로 앞선 8회초 승리투수 요건을 갖추고 마운드에서 내려갔다. 그러나 8회초 전문 소방수 브라이언 윌슨은 커쇼의 각종 기록을 한방에 날려버렸다. 1사 후 알버트 푸홀스에게 동점 솔로 홈런을 허용했다.

커쇼는 다저스 투수로는 1985년 오렐 허샤이저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개인 11연승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 또 올 시즌 메이저리그 첫 14승 투수가 될 기회도 잃었다.

다저스는 9회말 1사 후 후안 우리베가 우전 안타로 출루하며 역전 기회를 잡았다. A.J. 엘리스의 중전 안타로 이어진 1사 1, 3루에서 대타 안드레 이디어는 3루수 앞 땅볼을 쳤다. 공을 잡은 3루수 데이비드 프리스는 곧장 홈에 뿌렸으나 태그 과정에서 포수 크리스 이아네타가 공을 놓쳤고 그 사이 우리베가 베이스를 밟아 경기를 끝냈다. /유순호기자

이용대 아시안게임 첫 금 스매싱

자격정지 시련 딛고 배드민턴복식 대표 선발

배드민턴 간판스타 이용대(삼성전기·사진)가 자격정지의 시련을 딛고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을 노린다.

이용대는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의 랭킹에 따라 6일 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복식 대표로 선발됐다. 이용대는 유연성(복식 세계랭킹 2위)과 조를 이뤄 김기정·김사랑(세계랭킹 5위·이상 삼성전기)조와 함께 대회에 출전한다.

이용대는 올해 초 약물 검사 절차 위반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협회 차원의 소명 작업을 거쳐 자격 정지에서는 벗어났다. 복귀 후 6월 슈퍼시리즈급 대회에서 3주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이용대-유연성은 지난해 10월 남자복식 파트너를 이뤄 9개월이 만에 세계랭킹을 2위까지 끌어올렸다.

이용대는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혼합복식 금메달을 땄지만 아시안게임에서는 2006년 도하와 2010년 광저우에서 남자복식 동메달, 남자단체전 은메달을 따는데 그쳤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6일)

■사직

NC	003	100	000	4
롯데	004	200	13X	10

[illegible]

■청주

삼성	002	000	000	00	2
한화	000	001	001	02	4

[illegible]

프로축구 전적 (6일)

전북	3	2	수원
전남	1	2	인천
제주	2	3	상주
경남	1	1	부산
포항	1	0	성남
서울	0	1	울산

[illegible]

tvN 물오른 로맨틱 판타지
잉여공주
Ready
취준생
미스터리 셰프
오늘 밤 11시 tvN 첫방송
온주완 | 송재림